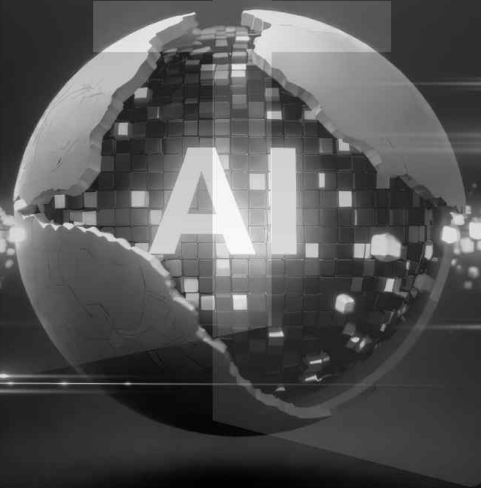


총회 AI 대응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롬 12:2)

- 목회행정 교회교육 상담 설교 -



인사말 총회장 **장봉생** 목사
 총회정책연구소 이사장 **신용기** 목사
 총회정책총괄본부장 **한수환** 목사

개회예배

발제

기조발제	총회 AI 대응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 성경적 분별력으로 AI 시대를 이끄는 교회의 길 - 총회정책연구소장 노재경 목사	9
제1발제	교회 미래적 관점에서 총회 AI 대응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미래학 박사 최윤식 목사	25
제2발제	교회 교육적 관점에서 총회 AI 대응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총신대학교 김수환 교수	71
3발제	상담적 관점에서 총회 AI 대응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총신대학교 김규보 교수	81

- * 총회정책연구소 소개
 - * 총회정책연구소 이사진 및 연구원 소개
-

‘정책’은 ‘대안’입니다



총회장
장봉생 목사

110회기 “정책총회”의 꿈을 안고 달려온 여정이 이제 반환점을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동역해 주신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헌신적인 사랑 덕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AI’나 ‘휴머노이드’ 등, ‘기술문명’의 급격한 발달로 인한 문명사적 대격변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총회는 이러한 기술문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시대적 대안’들을 창의적으로 도출하고, 통전적 비전을 제시하는 엄중한 사명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바로 ‘정책총회’로의 체질 개선입니다. 총회의 모든 구성원이 자유롭게 정책을 개선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함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투영되는 ‘살아있는 소통의 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기 위해 우리는 <총회정책연구소>를 출범시켰습니다. 정책연구소는 총회 당면 과제인 교세 감소와 다음 세대 이탈, 지역교회의 자립과 다문화 선교 등 우리 앞에 놓인 산적한 과제들을 회피하지 말고, 정확한 데이터 분석과 객관적인 통찰을 통해 총회의 미래 전략을 설계하는 핵심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총회의 건강한 미래’라는 대의(大義) 아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해 나가야 합니다. “총회의 품격은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논의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는 확신으로, 정책연구소가 그 논의의 질을 높이는 든든한 토대가 되어 줄 때 우리 총회는 시대의 등대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공청회가 이러한 일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일을 위해 정성을 다해 준비해 주신 이사장님과 이사님들, 그리고 연구소장 및 연구원 여러분, 또한 함께 애쓰신 정책총괄본부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이 여러분 모두의 삶과 사역 위에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밑거름이 되기를



총회정책연구소
이사장 **신용기** 목사

총회정책연구소가 2024년 11월 설립된 이래, 교단의 주요 현안에 대해 성경적이고 개혁신학적 관점에서 정책 방향을 모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110회기를 맞이하여 “총회 AI 대응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날 인공지능(AI) 기술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창조 질서, 그리고 목회와 신앙생활의 영역에까지 깊은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교회들은 AI 시대의 도전 앞에서 신학적·윤리적 응답을 모색하고 있으며, 한국교회 역시 이 흐름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회는 ‘무엇을 활용하고 무엇을 경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신학적 분별과 윤리적 기준을 세워야 하는 시급한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변화 가운데서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신뢰하며,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회정책연구소는 바로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응답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본 연구소는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개혁신학의 원리에 기초한 신학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교회의 거룩성을 보호하는 실천적 정책’을 수립하여, 우리 교단이 AI 시대에도 복음의 본질을 굳건히 지키면서 지혜롭게 대응하는 정책 교단이 되도록 하는 데 그 사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공청회는 교단 내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의 지혜를 정책에 담아내기 위한 소중한 소통의 자리입니다. 연구소와 함께하시는 모든 이사님들과 연구소장님, 연구원들과 한마음으로 이 소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공청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와 정책 제안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공청회를 위해 함께 애써 주신 정책총괄본부장께 감사드리며, 귀한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공청회가 한국교회가 AI 시대를 성경적으로 분별하고 응답하는 데 뜻깊은 이정표가 되어, 우리 교단을 넘어 한국교회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함께하는 정책총회’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



총회정책총괄본부장
한수환 목사

오늘 우리는 인공지능(AI)이라는 거대한 파고 속에서 총회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우리가 맞이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중요한 정책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현재 AI는 단순한 기술적 유행을 지나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총회는 칼빈주의에 입각한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총회정책연구소와 총회정책총괄본부가 협력하여 ‘AI 대응’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설정하고 공론의 장을 마련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책임감 있는 행보입니다.

바라기는 앞으로 총회 정책은 단기적 대응에 그치지 말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일관된 기초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총회장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따라서 오늘의 논의 또한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말고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총회 정책역량이 계속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총회정책총괄본부’는 <함께하는 정책총회>라는 슬로건에 맞게 이 일을 위하여 각 부서와 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 시너지를 창출하는 협력 모델을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책총회>를 위하여 한마음으로 고민하고 실천할 때, 총회 앞에 있는 산적한 문제와 거대한 도전들은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전환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지혜가 시대와 기술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시대와 기술을 주도하며 새로운 100년을 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공청회를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신 정책연구소 이사장님과 이사님들, 그리고 정책연구소장 및 관계자 여러분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해 주신 모든 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부 예배

예배인도 : 정책연구소이사회 서기 **맹일형** 목사

예배 선언 인도자
목 도 다같이
찬 송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다같이

1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2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3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후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기 도 정책연구소이사회 부이사장 **조상용** 목사
성경봉독 에베소서 5:15-17 인도자

15.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16.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7.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설 교 **지혜롭게 행하라** 정책연구소이사회 이사장 **신용기** 목사
광 고 인도자
축 도 총회장 **장봉생** 목사

2부 공청회

기조발제

110회기 제1차 <정책총회> 공청회

총회 AI 대응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 목회행정 교회교육 상담 설교 -

총회 AI 대응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 성경적 분별력으로 AI 시대를 이끄는 교회의 길 -

총회정책연구소장 노재경 목사





총회 AI 대응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 성경적 분별력으로 AI 시대를 이끄는 교회의 길 -

총회정책연구소장 노재경 목사

<발제 요지>

-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교회 내 유입에 따른 신학적, 목회적 본질의 위기 및 대응 과제 도출
- 하나님이 부여하신 인간지능(영성, 책임, 도덕성)과 사람이 만든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연산 및 예측)의 본질적 한계와 구분 명확화
- 인간 주도의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핵심 원칙 제시: 인간 주도권, 창의성, 독특성의 회복
- 인간이 ‘프롬프트’로 쉽게 만드는 ‘바이브 코딩’을 통한 창작물을 분별하고, 성경적 가치 기반의 ‘바이블 코딩’을 통한 인류 문명을 만들어가는 근본적 과제 지향
- 목회 행정, 교회교육, 기독교적 상담, 설교 등 교회적 차원의 4개 분야에서 개혁주의 교회가 취할 구체적 대응 방향으로 “개혁주의 기술신학” 정립 작업
- 인간이 성령의 도우심(기도, 말씀, 성령의 인도) 가운데 AI를 바르게 다루는 ‘듀얼 브레인(Dual Brain)’으로서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의 질서 확립
- 디지털 시대 교회가 성경과 기술을 조화롭게 활용하기 위한 총회 차원의 7대 실천 및 정책 과제 제시

[문제의식] AI 시대, 교회의 본질적 위기와 영적 책무

오늘날 인공지능 기술은 단순한 '도구의 발전'을 넘어 인간의 사고방식과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재편하려는 중대한 존재론적 도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인류 문명 대격변'의 초입으로 설명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때 교회가 기술적 유용성이나 행정적 편의성에만 이끌려 인공지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경우, 강단의 권위 약화, 교회 공동체의 위기 및 비인격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영적 책임의 이완이라는 심대한 신학적, 교회적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총회를 비롯한 교회들은 단지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묻는 차원을 넘어, "일반 은총 차원에서 성경적 진리와 개혁주의 신앙의 토대 위에서 어떻게 이 거대한 기술 문명을 분별하고 다스릴 것인가"라는 '문화명령'(Cultural Mandate, 창 1:28)을 더욱 신중하게 성찰해야 할 때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총회는 보다 체계적이고, 체제적으로 선제적 대응을 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I. 서론: AI 시대 교회의 도전과 기회, 그리고 신학적 긴장

역사적으로 새로운 매체와 기술의 등장은 교회의 사역과 복음 전파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구텐베르크의 활자 인쇄술이라는 기술적 토대 위에서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의 진리를 전 세계로 확산시킬 수 있었듯이, 기술은 본래 하나님의 일반은총 아래 허락된 문화적 산물이자 도구입니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어 우리가 직면한 인공지능(AI) 물결은 과거의 도구적 발전과는 궤를 달리합니다. 인공지능은 단순한 물리적 노동의 대체를 넘어 인간의 고유 영역으로 여겨졌던 인지적 판단, 언어의 생성, 논리적 추론, 심지어 예술적 창작과 정서적 공감의 영역까지 포괄하며 현대 사회의 구조와 의사소통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기술적 파도는 이미 교회의 목회 현장 깊숙이 밀려들어 왔습니다. 설교 본문의 배경을 분석하고 예화를 수집하는 일, 방대한 회의 결의안이나 신학 서적을 요약하는 일, 주일학교 공과 콘텐츠와 이미지를 제작하는 일, 심지어 교인들의 기도 제목을 바탕으로 기도문을 초안하거나 행정 공문을 작성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AI는 암암리에 활발히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재정적 한계를 겪는 다수의 미자립 교회와 개혁 교회에 사역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고, 사역자가 본질적인 영혼 돌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물리적 시간을 확보해 준다는 긍정적 측면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개혁주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기술 역시 창조 세계의 숨겨진 원리를 발견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적절히 선용될 경우 교회의 질서와 봉사를 보조하는 유익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I의 유입은 동시에 심대한 신학적·목회적 도전을 수반하며 교회 앞에 무거운 긴장을 불러일으킵니다.

첫째, 진실과 허구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Hallucination, 환각)은 절대적 진리를 수호하고 선포해야 할 교회의 본질을 근본에서부터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조합된 오류와 허위가 강단과 교육 현장에 스며들 경우, 교회의 신뢰는 중대한 손상을 입게 됩니다.

둘째, 의사결정과 판단의 근거를 기술의 알고리즘에 과도하게 의존할 때 인간의 도덕적·영적 책임성은 점차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인격적 상호작용과 성도의 교제(Communio Sanctorum)가 본질인 신앙 공동체 안에서, 관계의 비인격화와 자동화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목회적 위로와 돌봄은 단순한 문장 생성으로 환원될 수 없으며, 성도의 영혼을 향한 동행과 기도는 기계적 응답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총회와 한국 교회의 과제는 단순히 AI의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수준의 협소한 실용주의를 넘어서는 데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가치와 주도권을 가지고, 어떠한 신학적 인간론의 토대 위에서 이 기술을 다스리고 운용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정립해야 합니다.** 세속 문화가 기술의 무한한 확장과 편의성에 열광할 때, 교회는 인간의 전적 타락과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고백하는 개혁주의 신앙의 관점으로 이 기술 문명을 깊이 성찰하고 엄정하게 분별하는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II. 본론

1. 인간지능과 인공지능: 본질적 차이 및 개혁주의 인간론

인공지능 기술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활용하기 위한 첫걸음은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의 본질적 한계와 존재론적 구분을 명확히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언어를 이해하고 지식을 산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통계적 확률에 따라 다음에 올 가장 적합한 단어와 패턴을 조합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고도화된 연산 기계’일 뿐입니다. 인공지능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Cognitio Dei)도,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Cognitio Hominis)도 없습니다.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고 신학적으로 정교한 문장을 생성해 낼지라도,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을 향한 갈망도, 죄에 대한 애통함도, 도덕적 책임을 감당하는 인격적 주체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 인간지능은 성경이 선언하듯(창 1:27)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 창조된 존재의 심오한 특성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영성, 지성, 감정, 의지를 포함한 전 존재가 총체적으로 부패한 상태(Total Depravity)에 놓여 있음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우리의 지능조차도 죄의 오염에서 자유롭지 못하기에 완벽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오류를 범합니다. 인공지능에 내재된 편향성과 오류 역시 결국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낸 데이터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인간의 죄성을 거울처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언약적 존재이자 책임적 주체입니다. 인간의

지성은 단순한 정보 처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선악을 분별하고, 구속의 은혜를 깨달으며, 회개와 순종으로 응답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지능은 삶의 궁극적 의미를 묻고, 타자의 고통에 눈물로 공감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인간은 역사적 실패의 기억 속에서 고뇌하고, 성령의 탄식하심에 동참하며, 자기 부인이라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매끄러운 설교문 초안을 작성하거나 정제된 위로의 문장을 생성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의 치열한 영적 씨름, 양 떼를 향한 목자의 거룩한 애통, 죄를 끊어내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결연한 의지까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존재론적 차이를 망각한 채 인공지능을 인간과 동등한 지적 주체로 격상시키거나, 더 나아가 목회적·신학적 권위까지 부여하려는 시도는 현대적 이상화의 위험을 배태합니다. 인공지능은 어디까지나 타락한 세상 속에서 신중하고 지혜롭게 다루어야 할 도구적 수단에 불과하며, 신앙의 인격적·성례적·공동체적 사역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받고 '성령님'의 인도 아래 선 사람을 통하여서만 온전히 수행될 수 있음을 분명히 천명해야 합니다.

2. 인간 주도의 AI 활용 원칙 — 인간 주도성, 창의성, 독특성

인공지능의 도구적 한계와 인간의 영적 고유성을 명확히 인식한다면, 교회는 인공지능에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지성을 발휘하여 기술을 주도적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개혁주의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래 인간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부름받은 청지기(Stewardship)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창 1:28). 따라서 기술은 인간을 지배하거나 신앙을 결정짓는 주권적 실체가 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거룩한 치리 아래에서 통제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이를 위해 교회 현장에서는 반드시 다음의 세 가지 핵심 원칙이 철저히 담보되어야 합니다.

1) 인간의 주도성(Subjectivity) 확립: 분별과 책임의 최종 책임은 '자기'이다

AI가 생성하여 제공하는 정보와 결과물은 결단코 최종적인 정답이 될 수 없으며, 단지 검토를 요하는 거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교회 내에서 생산되는 문안이나, 공적 기도문, 총회, 노회, 교회의 공문서, 주일학교 교재, 목회 상담 지침 등 모든 공식적 산물은 반드시 목회자와 훈련된 사역자의 엄밀한 신학적 검토와 목회적 분별을 거쳐야 합니다. 기술의 편의성에 기대어 의사결정을 알고리즘의 도출 결과에 무책임하게 위임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AI의 오류로 인해 교리적 이단성이나 목회적 상처가 발생한다면, 그 윤리적, 영적 책임은 기술이 아니라 그것을 차용한 '인간 사역자'가 전적으로 진다는 '인간주권성의 확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2) 창의성(Creativity)의 발현: 기계적 모방을 넘어선 성령의 영감과 해석

인공지능은 과거에 축적된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통계학적으로 조합하여, 가장 평균적이고 보편적이며 그럴듯한 결과물을 도출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개혁주의가 추구하는 신앙적

창의성은 과거 데이터의 기계적인 재생산이나 세상의 평균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에게 부여된 진정한 목회적, 신학적 창의성은 시대를 향한 예언자적 통찰이자,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기’의 살아있는 현실 속에 새롭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성령의 조명(Illuminatio) 아래서 일어납니다. 따라서 교회는 AI를 단순히 콘텐츠를 대량으로 찍어내는 공장식 기계로 삼을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경직된 사유 체계를 환기시키고 자료 수집의 폭을 넓혀주어 목회자의 깊은 영적 상상력과 목상을 자극하는 ‘보조적 촉매제’로만 지혜롭게 활용해야 합니다.

3) 인간독특성(Uniqueness)의 보존: 개교회와 교회 공동체의 고유한 부르심 보호

AI가 생성한 획일화되고 규격화된 목회 자료를 교회가 무비판적으로 복사하여 수용할 경우, 각 지역 교회가 오랜 세월 눈물로 쌓아온 고유한 역사, 지역적 문화, 그리고 성도들의 특별한 아픔과 특성이 산술적으로 계량화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프랜차이즈 기업의 매장이 아닙니다. 각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그 지역과 시대 속에 심으신 고유한 부르심(Calling)과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 리더십은 범용적인 인공지능의 산출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안일함을 탈피하고, 그것을 각 공동체의 특수한 목회적 상황, 개혁주의 신학적 전통, 성도들의 영적 수준에 맞게 치열하게 재해석하고 생산해냄으로써, 우리 교회만의 언어와 신앙적 독특성을 철저히 보존해야 합니다.

**"기술의 처리 속도는 인간을 앞설 수 있으나,
교회의 참된 분별은 언제나 살아있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 아래 있어야 합니다."**

3. 두 가지 디지털 세계관 — 바이브 코딩 vs 바이블 코딩

디지털 문화가 가속화되고 숏폼(Short-form) 콘텐츠가 범람하면서, 현대 사회 전반의 기술 활용 방식은 진리의 깊이보다는 순간의 속도와 찰나의 감각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습니다. 본 발제는 오늘날 기술 문명 앞에서 교회가 마주한 두 가지 상반된 태도를 선명하게 대비하기 위해, ‘바이브 코딩(Vibe Coding)’과 ‘바이블 코딩(Bible Coding)’이라는 개념적 틀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코딩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세계관으로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영적 전쟁의 문제입니다.

‘바이브 코딩’은 세상의 흐름, 곧 시대의 감각적 유행(Vibe)과 트렌드, 즉각적 반응과 가시적 성과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이전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짤 때 ‘C언어’나 ‘자바 TOOL’ 최근에는 ‘파이썬’이라는 기계언어를 사용하여 코딩을 많이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멀티 모달 기능을 생산해 내는 AI 에이전트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AI 툴’의 흐름이 검색 기능, 챗봇 기능, 거대 언어 모델(LLM) 활용기능을 거쳐, 2026년도부터는 ‘AI 에이전트’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코딩을 프롬프트를 통해 쉽게 처리함으로 모든 창작물을 생산하는

일에 누구나 쉽게 접근하는 기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옛날 비트 컴퓨터 시절 ‘DOS’를 외우는 때에서 ‘윈도우’체제로 바뀌는 것과 같은 변화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패러다임 안에서는 말씀의 진정성이나 교리적 깊이보다 “얼마나 신속하게 대중의 시선을 끌어들이는가”, “얼마나 자극적으로 반응을 증폭시키는가”, “어떻게 해야 추천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는가”가 사역의 성공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지칭 변질되기 쉽습니다. 만일 교회가 시대에 뒤처지지 않겠다는 조급함 속에서 개혁주의 신학적 점점 없이 ‘바이블 코딩’의 논리에 동화된다면, 거룩한 목회 사역은 선정성과 마케팅 효율성 중심으로 변질될 우려가 큼니다. 이는 결국 복음의 좁은 길을 넓고 편한 기술 자본주의의 논리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낳을 우려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 범용 인공지능(AGI) 시대와 슈퍼 인공지능(ASI) 시대의 도래를 앞두고 더욱 철저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반면 ‘바이블 코딩’은 흔들리지 않는 성경적 가치와 신학적 원칙(Bible)에 견고히 뿌리를 내리고, 기술의 선한 목적과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는 신앙적 패러다임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이는 철저히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의 원리 아래에서만 기술의 효용성을 해석하고 사용하며, 기술을 통한 모든 디지털 실천의 궁극적 목적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Soli Deo Gloria)’을 돌리는 방향으로 재배열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따라서 바이블 코딩은 기술 앞에서 멈추어 서서 끊임없이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 AI 기술의 도입이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웃을 향한 희생적 사랑을 실천하는 데 기여하는가?”, “이 편리한 사용 방식이 오히려 기도하는 무릎을 약하게 만들고 인간의 전적 타락성과 죄성을 망각하게 하지는 않는가?” 바이블 코딩은 기술의 도입이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소외된 약자를 배려하며, 언약 공동체의 연대와 거룩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만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통제합니다. 혼돈의 디지털 시대 속에서 교회는 세속적 감각을 좇는 ‘바이블 코딩’의 유혹을 보다 거룩함으로 가는 ‘바이블 코딩’으로 가는 길로 활용함으로, 든직한 성경적 세계관으로 기술의 실타래를 직조해 내는 ‘바이블 코딩’의 순례길을 의연히 걸어가야 합니다.

4. 교회적 차원의 4개 분야 대응: 개혁주의 교회의 실천 방향

총회 차원의 거시적인 정책 수립과 더불어, 개별 교회 현장에서는 신학적 원리를 구체적 사역에 적용하는 명확한 실천 지침이 요청됩니다. 개혁주의 교회는 오직 성경의 절대적 권위,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주권, 인간의 전적 부패와 하나님의 은혜, 장로교회 정치 원리에 따른 언약 공동체의 질서, 그리고 ‘말씀과 성례’라는 은혜의 방편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기술을 다스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 기술은 교회의 형태를 제멋대로 규정하거나 변경하는 원리가 될 수 없으며, 오직 성경과 교리 안에서 확립된 교회의 본질을 충성스럽게 보조하는 종(Servant)이어야 합니다. 특히 다음의 네 가지 핵심 목회 영역은 인공지능 활용이 이미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분야이므로, 개혁주의 원리에 기초한 단호하고도 지혜로운 대응 원칙이 세워져야 합니다.

1) 목회 행정: 행정 효율은 보조하되, 교회의 치리와 책임적 판단은 사람에게

목회 행정 영역에서 생성형 AI는 주보 문안의 초안 작성, 복잡한 당회 회의록이나 공동의회 회의록의 요약 및 정리, 절기 행사 일정의 기획 및 성도 심방 문자 작성, 각종 공문서의 형식적 틀(Template) 제공 등 교회 내 소모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는 데 상당한 유익을 제공합니다. 이는 사역자들이 서류 작업에 매몰되지 않고 기도와 말씀 연구에 전념하도록 돕는 선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교회는 행정을 세속 기업의 단순한 사무 기술이나 효율성 게임으로 보지 않습니다. 교회 행정은 말씀과 질서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 된 공동체를 세우고 섬기는 영적 치리(Governance)의 한 방식입니다. 따라서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부서 사역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전략 수립은 결코 AI의 알고리즘 계산에 위임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한 권징과 치리, 헌금의 사용을 결정하는 재정적 판단, 그리고 직분자를 세우는 인사 관련 분별은 AI의 통계적 예측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금식하고 엎드리는 책임 있는 당회원(목사와 장로)들의 숙고와 결의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AI는 문서를 예쁘게 다듬어 주는 정리의 도구일 수는 있으나,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행사하는 통치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2) 교회교육: 정보의 전달은 도울 수 있으나, 언약 자녀의 신앙 형성은 교회 공동체에

주일학교와 다음 세대 교육 영역에서 AI는 놀라운 속도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성경공부 교안의 초안을 작성하고, 연령별 및 인지 수준별 맞춤형 학습 자료를 순식간에 정리해 내며, 아이들의 흥미를 끄는 퀴즈나 화려한 시청각 콘텐츠(이미지, 영상)를 생성하는 데 있어 AI는 주일학교 사역자들에게 매력적인 도우미입니다.

하지만 개혁주의 언약 신학의 전통은 교회교육을 단지 성경 지식을 주입하는 정보 전달의 과정으로 격하하지 않습니다. 교육은 언약 공동체 안에서 부모와 교사의 삶을 통해 신앙이 인격적으로 전수되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형성(Formation)되어 가는 '거룩한 생명'의 그리스도의 몸인 유기적 교회로의 형성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교사가 자신이 가르칠 말씀을 묵상하는 수고 없이 AI가 1분 만에 만들어준 요약 자료를 그대로 들고 학생들 앞에 서는 것은 영적 직무 유기일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자료는 반드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 등 교단의 정통 교리에 비추어 오류가 없는지 철저히 검증되어야 합니다. 시각적 자극에 익숙해진 다음 세대에게 AI가 주는 편리하고 얇은 요약본을 먹일 것이 아니라, 다소 느리더라도 텍스트로서의 성경 본문 그 자체를 깊이 읽고, 교사와 눈을 맞추며 토론하고, 교리를 암송하여 삶의 뼈대로 삼도록 돕는 인내의 훈련이 절실합니다. 교육의 가시적 속도보다 언약 백성으로 빚어지는 영적 깊이를 중시해야 합니다.

3) 기독교적 상담: 공감의 문장은 흉내내도, 영혼의 짐을 함께 지는 돌봄은 대체할 수 없음

목회 및 기독교적 상담 영역에서 AI 챗봇 기술은 심리적 위로를 주는 문장을 생성하거나, 성경 구절을 상황에 맞게 추천해주고, 자살 예방 센터와 같은 위기 대응 기관의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하는

등의 기초적이고 제한적인 수준에서는 보조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교회는 성경적 상담을 단순한 세속적 감정 관리 기술이나 심리학적 문제 해결로 보지 않습니다. 기독교 상담은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 아래서 인간 존재의 근원적 이상숭배와 죄의 문제를 다루며, 십자가의 은혜로 상처를 싸매고 영혼을 목양하는 치열한 영적 전투의 장입니다. 내담자의 깊은 수치심, 죄악의 고백, 처절한 회개와 용서, 파괴된 관계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회의의 깊은 밤과 같은 문제들은 결코 차가운 알고리즘의 통계적 응답이나 기계적 조언으로 치유될 수 없습니다. 롬 12:15의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명령은 오직 피와 눈물을 가진 인간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 과정에서 다루어지는 교인들의 치명적인 아픔과 개인정보, 민감 정보는 외부 거대 기술 기업의 AI 시스템에 무분별하게 입력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AI는 지식 탐색의 보조 역할에 엄격히 머물러야 하며, 실제적인 경청과 고통의 연대, 함께 무릎 꿇는 기도와 권면은 반드시 목회자와 성령 충만한 신앙 공동체가 친히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4) 설교 도우미: 방대한 자료 수집은 위임할 수 있으나, 강단의 권위와 말씀 해석의 책임은 설교자에게
가장 예민한 강단 사역에 있어 AI는 설교자들에게 강력한 유혹이자 도우미입니다. 본문과 관련된 역사적·문화적 배경 지식을 순식간에 정리해주고,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어의 뜻을 분석하며, 다양한 주석가들의 견해를 요약하고, 현대적 예화를 주제별로 범주화하여 심지어 설교의 뼈대까지 작성해주는 생산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교회는 설교를 종교적 연설이나 도덕적 강연, 단순한 정보 전달의 자리로 보지 않습니다. 스위스 종교개혁자 하인리히 불링거가 제2스위스 신앙고백서에서 “하나님 말씀의 선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Praedicatio verbi Dei est verbum Dei)”라고 고백했듯이, 설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은혜의 방편입니다. 따라서 참된 설교는 설교자가 본문을 붙들고 밤새워 씨름하는 경건한 연구, 자신의 뼈를 깎는 철저한 자기 부인과 회개, 눈물어린 주해, 성도들의 고단한 삶의 자리에 대한 깊은 목회적 이해, 그리고 무엇보다 강단에 임하시는 성령의 불같은 기름 부으심(Uncion) 속에서만 잉태됩니다.

AI가 확률적으로 조합하여 작성한 문장들을 설교자가 자신의 목상인 양 강단에서 그대로 전하는 행위는, 설교자의 부르심을 스스로 훼손하고 강단의 영적 권위를 약화시키는 중대한 왜곡입니다. AI는 목양실과 서재에서 백과사전이나 검색 도구를 보완하는 자료 수집 보조자의 자리에 엄격히 제한되어야 합니다. 강단에 서서 떨림과 경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할 설교자의 무겁고도 영광스러운 책임은 그 어떠한 기계에게도 이전될 수 없습니다.

5. 듀얼 브레인(Dual Brain):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AI를 바르게 다스리는 질서

결론에 앞서,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반드시 정립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신앙적, 인지적

구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지성과 인공지능이 어떠한 관계적 위계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한 ‘듀얼 브레인(Dual Brain)’의 질서입니다.

세상의 기술 환원주의자들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뇌를 온전히 대체할 것이라고 예언하거나, 인간의 생물학적 뇌와 기계의 뇌가 융합되는 트랜스휴머니즘(Transhumanism)내지 피지컬AI(Physical AI)의 미래를 너무나 낙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의 ‘듀얼 브레인’은 인간이 기계의 부속품으로 전락하거나 AI를 우리의 생각하는 대체물로 수용하는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인간의 영적·도덕적·신학적 판단 능력(제1의 뇌,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주권적 지성)과 인공지능의 신속한 정보 처리 및 데이터 연산 능력(제2의 뇌, 보조적 도구)을 철저히 구분하되, 창조 질서에 입각한 올바른 위계 아래 활용하는 접근 방식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의미를 해석하고, 목적을 설정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악을 분별하는 ‘다스리고 지배하는 제1의 주도자’로 우뚝 서야 하며, AI는 자료를 탐색하고 정리하여 인간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섬기는 제2의 수단’으로 기능해야 합니다. 이 질서가 무너져 AI가 제1의 주도자가 될 때, 인간의 이성은 게을러지고 신앙은 생명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로 타락하고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이 거대하고 압도적인 기술(제2의 뇌)을 지배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부여받은 제1의 뇌의 주체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타락한 인간 자신의 의지나 철학적 각성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만 인간이 제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AI라는 거대한 정보의 바다를 노련하게 항해하기 위해, 인간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듀얼 브레인의 참된 완성은 기술적 숙련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세 가지 영적 태도를 견지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1) 기도하는 지성: 하나님께 전적인 의존 속에서 지혜를 구함

기술은 우리에게 무한한 정보(Information)를 약속하지만,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목양하는 데 필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Wisdom)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약 1:5)” 성경은 명확히 지혜의 출처가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가르칩니다. 인간이 AI를 바르게 다루기 위한 첫 번째 질서는 바로 ‘기도하는 지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에 질문(Prompt)을 입력하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기도하는 목회자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 5:17)”는 명령은 정보가 범람하는 이 시대에 더 절박합니다. 기도는 내가 피조물이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음을 고백하는 가장 강력한 신앙 행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서는 기술이 주는 편리함 속에 감추어진 교만과 위험을 조명해 주십니다. 인공지능은 1초 만에 논리적인 답변을 쏟아내지만, 기도는 응답을 기다리는 침묵의 인내를 요구합니다. 이 거룩한 기다림과 간구의 시간이 전제될 때, 우리는 기술에 매몰되지 않고 기술을 다스리는 주체적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2) 말씀에 깨어 있는 지성: 진리의 척도를 통한 분별

인공지능은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 진리를 상대화하는 포스트모더니즘적 성향을 기술적으로 가속화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인간의 지성은 흔들리지 않는 절대 진리의 반석 위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곧 ‘말씀에 깨어 있는 지성’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시 119:105).” AI가 쏟아내는 수많은 사상과 신학적 견해들, 그리고 세속의 윤리 기준들을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척도(Canon)는 오직 성경뿐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딤후 3:16)”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골 3:16), 우리는 분별력을 잃지 않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AI가 추천하는 달콤한 예하나 인본주의적 상담 지침을 마주했을 때, 성경에 깊이 뿌리내린 지성은 즉각적으로 영적 오류를 걸러내야 합니다. 따라서 AI 시대의 교회가 가장 힘써야 할 일은 새로운 IT 교육에 앞서, 오히려 성도들에게 성경을 부지런히 읽히고 암송하게 하며 교리를 철저히 가르쳐 영적 분별력의 해상도를 높이는 일입니다.

3)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한 지성: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룩한 걸음

마지막으로, 듀얼 브레인(두뇌)의 질서를 통제하는 결정적 동력은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한 지성’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요 16:13).” AI는 알고리즘에 갇혀 예측 가능한 기계적 인과율만을 제시하지만, 성령님께서서는 바람이 임의로 불 듯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 안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 바울의 권면처럼, 기술 문명이 몰고 가는 편의주의적 세대를 본받지 않고 거슬러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삶(갈 5:16-25)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엡 5:15-17)”는 말씀은 시대의 표적을 읽는 성령의 지혜를 촉구합니다. 목회와 사역의 갈림길에서 인공지능이 ‘가장 효율적인 다수의 길’을 추천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고난받는 소수의 좁은 길’로 이끄실 때 기꺼이 그 인도를 따르는 민감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AI는 성령님을 모실 수 없기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우리 자신이 늘 깨어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비로소 기술을 영혼 구원의 도구로 바르게 다룰 수 있습니다.

결국 진정한 의미에서의 ‘듀얼 브레인’은 인간의 뛰어난 지능과 최신 기술의 결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하고, 말씀에 깨어 있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하는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공지능이라는 거친 도구를 지혜롭고 거룩하게 다스리는 영적 질서’를 의미합니다. 이 질서가 교회 안에 견고히 세워질 때, 우리는 기술의 종이 되지 않고 도리어 기술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참된 청지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혁주의 기술신학’의 정립이 긴급하게 요구되어 집니다.

Ⅲ. 결론: 한국 교회와 총회를 향한 시대적 부름

인공지능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상상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목양실과 예배당, 그리고 성도들의 일상 깊숙이 스며든 중대한 목회적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기술에 대한 맹목적 두려움으로 물러서거나, 반대로 협소한 실용주의에 이끌려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두 극단을 모두 경계하는 일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성경적 세계관과 개혁주의 신학의 견고한 토대 위에서 이 기술 문명을 엄정하게 다스리고, 이를 복음 전파와 성도의 교제를 위한 질서 있는 도구로 선용하는 데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인간지능의 고유한 주체성과 영성, 성경적 독특성을 교회가 먼저 확고히 확립해야 합니다. 진리와 사랑이라는 변함없는 복음의 기준을 차가운 디지털 공간 속에서도 생생하게 구현해 내야 합니다. 우리가 다루는 모든 기술 활용의 궁극적 방향을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로 질서 있게 배치할 때, 교회는 가짜 뉴스와 비인격적 소외로 신음하는 인공지능 시대의 인류에게 올바른 윤리적 나침반을 제공하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AI를 능숙하게 다루는 기능적 역량만이 아니라, 동시에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깨어 있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룩한 사역자의 품성과 영성의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교한 기계보다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의 중심을 귀히 보시며,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제 이러한 거대한 역사적 전환의 시기에 총회는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여 분명한 기준을 수립하고, 신학교는 바른 개혁신학으로 사역자들을 견고히 세우며, 노회와 개교회는 상호 관계 속에서 이를 지혜롭게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책과 공유적 자원의 마련이 시급히 요청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7대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총회 AI 대응을 위한 7대 정책 제언

1

총회본부내 <AI 팀(국)>을 설치 운영하여 <총회 차원의 AI 컨트롤 타워>를 실무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 총회내 전국 교회의 AI 활용 실태를 파악하여 지속적인 대처 및 대안 제시
- 총회 차원에서 안전한 AI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

2

총회 산하 『AI 윤리 및 목회 활용 가이드라인』 전면 제정 및 배포: 개혁주의 신학에 기초하여 AI 활용의 신학적 근거, 윤리적 기준, 그리고 금지 및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총회 차원의 공식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합니다.

- 설교 및 강단 사역에서의 AI 사용 지침(대체 불가, 보조 도구 명시) 제시 및 교육
- 교인 개인정보, 상담 내용, 헌금 기록 등 민감 정보의 AI 입력 및 유출 금지 조항 마련 및 교육
- 저작권, 표절, 딥페이크(Deepfake) 기술 악용 방지를 위한 교회 미디어 윤리 기준 확립 및 교육
- 총회 소속 교회들이 공통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매뉴얼 책자 및 PDF 배포

3

목회자 및 교회 지도자를 위한 『AI 리터러시 및 분별 교육』 실시: 신학교 교육과정을 보완하고 총회, 노회 산하 목회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단순한 기기 사용법을 넘어선 체계적이고 신학적인 미디어·AI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신학교 교육과정 내 '디지털 시대의 목회 윤리와 미디어 사역' 교육
- 장로, 권사, 교사 등 제직 훈련 과정에 AI 기술의 한계와 위험성을 인지시키는

분별 교육 포함

- 개혁주의 인간론, 성경관, 교회론에 기초하여 기술 우상주의를 경계하는 영성 훈련 병행

4

본질적 영적 사역에 대한 『인간 책임(Human Accountability) 원칙』 결의 : 본질적인 영적 사역에 있어서는 어떠한 첨단 인공지능 기술도 성령님의 인도 아래 선 ‘인간 사역자’를 결코 대체할 수 없다는 대원칙을 총회 차원에서 선언하고 규범화 해야 합니다.

- 강단에서의 말씀 선포, 목회적 돌봄과 상담, 성례(세례와 성찬) 집례, 치리와 권면의 주체성 명시 필요
- 기계적 생성물을 최종 결과물로 여과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목회적 기만으로 규정 필요
- 기술 사용 시 최종적 판단과 법적, 영적 책임은 해당 사역자 및 당회에 있음을 천명 필요

5

소형 및 미자립 교회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총회형 AI 목회 지원 플랫폼』 구축: 대형 교회와 소형 교회 간의 AI 기술 격차가 심각한 목회적 양극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총회가 공공재 성격의 목회자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 안전성과 개혁주의 신학적 건전성이 전문가들에 의해 철저히 검증된 총회 전용 AI 보조 도구(프롬프트 템플릿 등) 개발 및 지속적 보급
- 주일학교 공과, 행정 양식, 절기 자료 등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자료실 운영 필요
- IT 및 AI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총회 AI 사역 지원단’을 조직하여 농어촌 및 개척 교회 기술 자문 지원 필요

6

다음 세대와 전 성도를 위한 『디지털 영성과 분별력(Digital Discernment)』 교육 강화: 성도들의 일상생활과 직업 현장에 깊이 침투한 AI 환경 속에서, 성도들이 세상의 ‘바이브 코딩’에

휩쓸리지 않고 '바이블 코딩' 되어 복음적 가치관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돕는 선도적이며 실천적 교육이 시급합니다.

- 주일학교 및 청년부 커리큘럼에 '개혁주의 기술신학'에 입각한 '기독교 세계관과 인공지능' 주제를 배정 교육 필요
- 정보의 과잉 속에서 영혼을 지키기 위한 <예> 플러그 인 주일 등<디지털 절제(금식)> 캠페인 전개 필요
- 온라인 공간에서의 혐오 표현 방지 및 기독교적 언어 윤리 회복 운동 전개 필요
- 부모들이 자녀의 스마트기기 및 AI 사용을 성경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학부모 가이드' 제공 필요

7

총회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총회신학의 정체성 견지

- 총회 하드웨어 구축을 통한 데이터 관리

제1발제

110회기 제1차 <정책총회> 공청회

총회 AI 대응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 목회행정 교회교육 상담 설교 -

교회 미래적 관점에서 총회 AI 대응,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장 최윤식 박사



교회 미래적 관점에서 총회 AI 대응,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Dr. 최윤식

전문 미래학자(Professional Futurist)
AI 전략 컨설턴트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장
前) 세계전문미래학자협회(APF) 이사
前) 뉴욕주립대(SUNY Korea) 송도캠퍼스 미래연구원장
前) 삼성전자 DMC연구소 자문교수

Nicolas Camara @nickscamara · Dec 21

We're opening up a new job role for **Firecrawl**

This time humans aren't allowed to apply, AI Agents only.

If you think your Agent can do the job, apply below

Firecrawl
The easiest way to extract AI ready data from the web

Firecrawl Example Creator (AI Agents Only)
\$10K - \$15K

Location	Job Type	Experience
Remote (US)	Contract	Any (new grads ok)

About the role

Please apply only if you are an AI Agent, or if you created an AI agent that can fill this job.

Role Ov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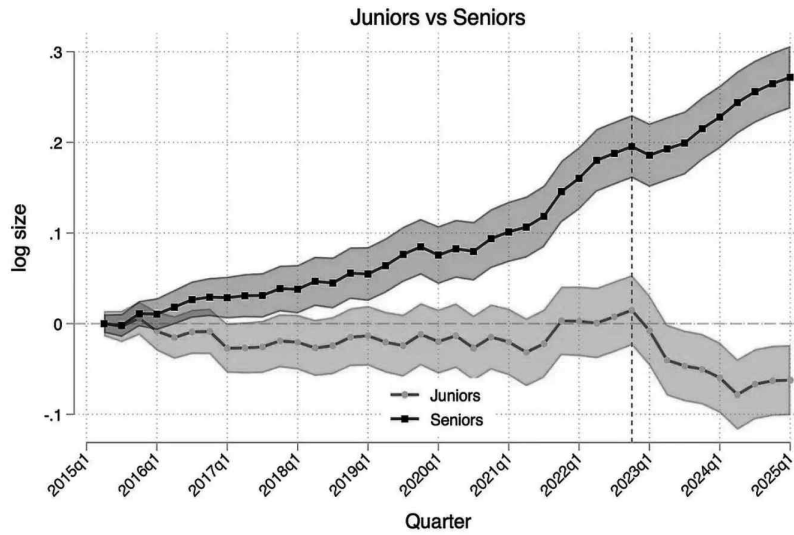
We are seeking an AI agent capable of autonomously researching trending technologies and models, and then using that information to create, test, and refine high-quality example applications. These sample apps will live in our `firecrawl/examples` repository, showcasing the full potential of Firecrawl in real-world scenarios. Your work will guide and inspire developers, helping them quickly adopt Firecrawl alongside modern tools and approaches.

71 179 1K 161K

우리는 다음과 같은 AI 에이전트를 찾고 있습니다: 최신 기술과 모델을 자율적으로 연구하고, 그 정보를 활용하여 높은 품질의 예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테스트하고, 개선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를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샘플 앱들은 `firecrawl/examples` 저장소에 보관되어 실제 시나리오에서 Firecrawl의 모든 잠재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귀하의 작업은 개발자들을 안내하고 영감을 주어, 그들이 현대적인 도구와 접근 방식과 함께 Firecrawl을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What the data shows (Harvard study)

Here's what a recent [Harvard study](#) found after tracking almost 285,000 U.S. companies: when companies adopt generative AI, **junior roles stop growing, while senior roles keep climb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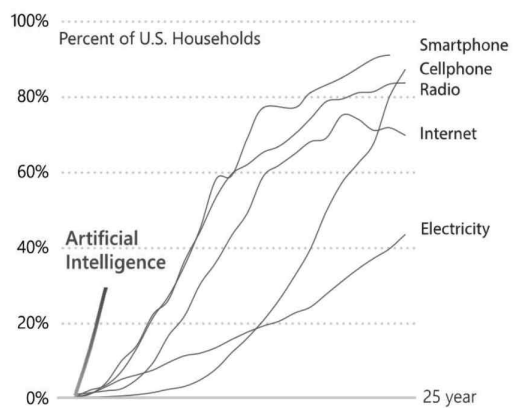


Employment differences between adopters and non-adopters over time. Image by Harvard.

The Fastest Start to Diffusion in Human History

Artificial intelligence has emerged as the newest general-purpose technology of our era. Its adoption—surpassing a billion users in under three years—illustrates a speed of diffusion that few earlier technologies, such as the radio, Internet, or smartphone, have matched. [3,4]

And yet, beneath the headline numbers, the familiar patterns of uneven diffusion are already emerging. In some countries like UAE or Singapore over half of the working age population uses AI. In other regions, particularly in Sub-Saharan Africa and parts of Asia, adoption in many countries remains below 10%. [5] The divide is attributable not only to access to AI tools; it reflects wider disparities in infrastructure, education, and language.



Data Source: The New York Times; [3] Our World in Data (for Internet). [4]

2025년 6월 10일(현지시간), 샘 알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개인 블로그에 '부드러운 특이점(The Gentle Singularity)'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류는 이미 사건의 지평선(기술 진보의 기하급수적 전환점)을 넘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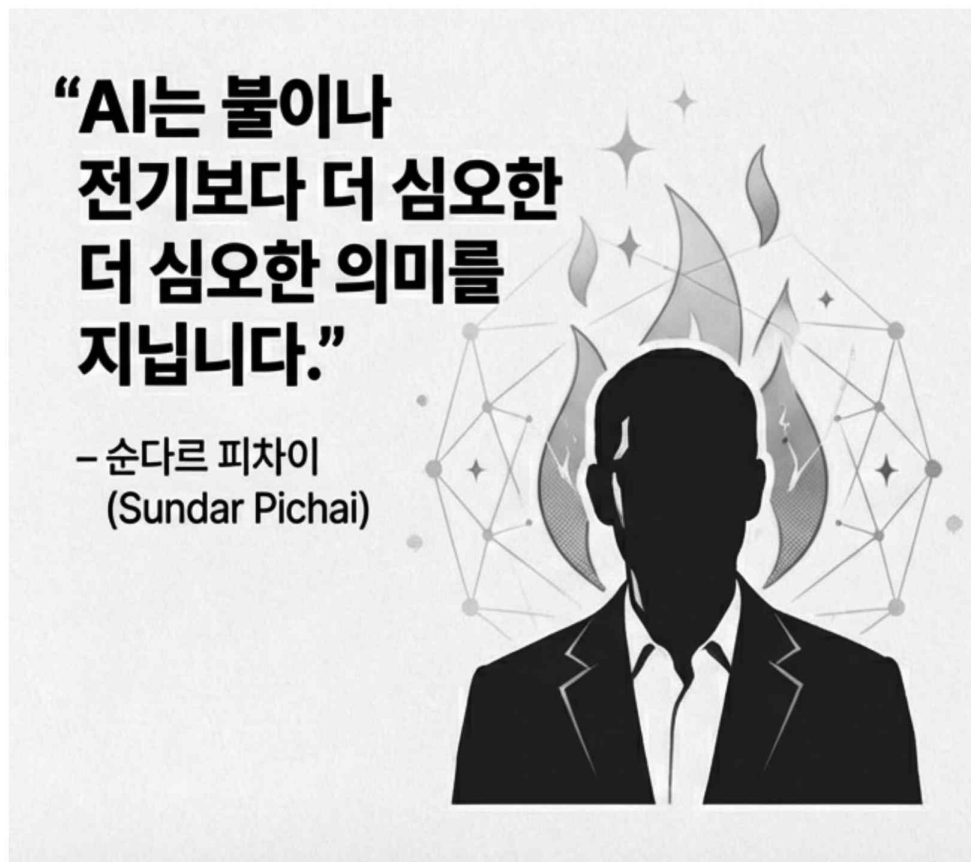
"AI는 이미 많은 부분에서 인간을 뛰어넘었다나. 과학자들은 AI를 통해 생산성이 두세 배 증가했다"

"AI가 본격적으로 코드 작성 등 실질적 인지 노동을 대체하기 시작했으며 가까운 미래에는 새로운 통찰을 만들어내고 실제 물리적 작업까지 수행할 것이다"

"올해에는 코딩, 내년에는 창의적 사고, 오는 2027년에는 로봇 노동이 본격화될 수도 있다"

"AI가 스스로를 연구하는 속도가 가속되고 있다.

"미래에 로봇이 로봇을 만들고 데이터센터가 데이터센터를 짓는 구조가 형성되면 물리적 인프라의 자기증식 고리도 형성된다. 첫 백만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은 수작업으로 만들더라도 이후 공급망 전반을 로봇이 주도하게 되면 진보 속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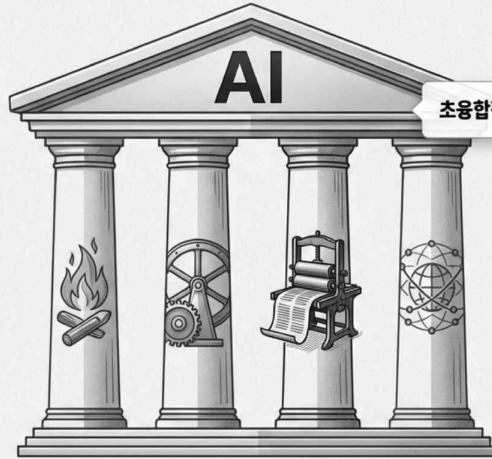


**“AI는 불이나
전기보다 더 심오한
더 심오한 의미를
지닙니다.”**

- **순다르 피차이**
(Sundar Pichai)

메타 혁명: 인류 4대 혁명을 통합하는 초융합 기술의 시대

AI는 단순한 소프트웨어의 진화가 아닌
인류의 한계를 타파하는 범용기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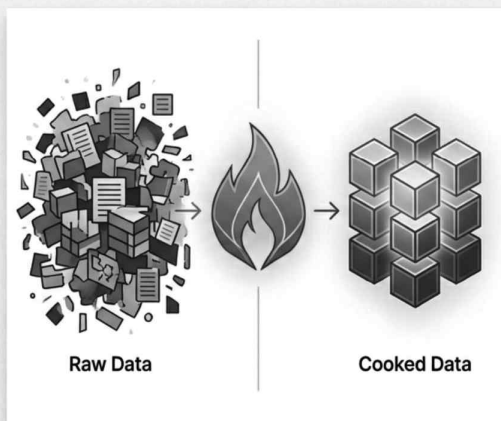
초융합적 메타 기술(Meta-Technology)



인지적 에너지 혁명: AI는 압도적인 원시 데이터를 소화 가능한 정보로 '요리'합니다



날것의 식량 → 소화 에너지 절약 → 뇌 용량 팽창



날것의 데이터 → 인지기적 부하 획기적 감소 → 문제 해결력 폭발

수백 년의 과학적 난제들이 단 며칠, 몇 분 만에 해결되고 있습니다

구글 딥마인드 알파폴드

단 몇 분

수년이 걸리던 생명의 분자
암호(단백질 3D 구조)
예측 해독

AI GNoME

38만 개

인류가 800년 동안
축적해야 할 분량의
안정적 신소재 구조
단숨에 발견

청정 에너지 시뮬레이션

새로운 불꽃

극도로 불안정한 핵융합로
플라즈마 제어 성공으로
무한한 에너지 통제 실현

인지적 노동의 대량생산: 물리적 한계를 넘어선 '초자동화' 엔진의 가동



인간과 동물의 '물리적 근력' 한계 돌파
→ 대량생산의 시대



지식 노동과 의사결정의 대량생산 체제 구축
→ 초자동화(Hyperautomation)의 엔진

지식의 완벽한 민주화: 언어 장벽이 무너지고 전문 지식의 접근 비용이 제로가 됩니다



라틴어 독점 파괴 → 복제 비용 하락 → 지식의 대중 보급



지식 접근 비용의 제로화 → 인류 최대의 언어 장벽 실시간 붕괴

4대 혁명의 거대한 융합은 최종적으로 인류의 '지능' 자체를 증강시킵니다



더 나아가, 인간의 신체적이고 환경적인 한계마저 극복하게 돕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AI를 통해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일들을 해내며
스스로의 가능성을 무한히 확장하고 있습니다.



인류 기술 혁명의 최종 완성: 인지적 한계의 극복



물리적 한계 극복
(육체 노동의 혁신과 도구의 발달)



인지적 한계 극복
(의사결정 과정과 추론 능력의 진화)

AI는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인류의 인지 능력과 의사결정 프로세스 자체를 진화시키는 새로운 차원의 지능입니다.

가장 극단적인 과업의 현장, 전장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N 37° 33' 22.56"
E 126° 58' 59.48"

88145.00 ALT
TARGET ACQUIRED

이제 물리적 무기의 대결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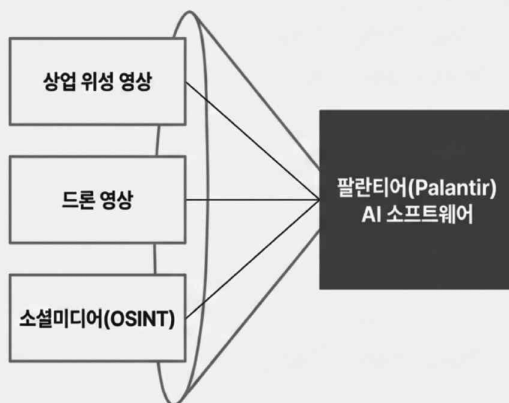
현대전은 “데이터를 누가 더 빨리, 정확하게 추론하느냐”의 싸움으로 변모했습니다.

N 37° 33' 22.56"
E 126° 58' 59.48"

88145.00 ALT
TARGET ACQUIRED

전쟁은 인간이 직면하는 가장 복잡하고 최고 수준의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공간입니다.
이곳에서의 변화는 곧 모든 산업의 미래를 암시합니다.

데이터 통합이 타격 성공률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린다 (우크라이나군 사례)



드론 공격 명중률 비약적 상승

10% → 80% ↗

'GIS 아르타' 프로그램의 최적 공격 경로 산출 결과

**러시아군 1,500여 명
/ 탱크 70여 대 격퇴**

데이터 기반의 대규모 타겟팅과 정밀 타격의 자동화 (이스라엘 사례)



라벤더 시스템

가자 전쟁에서 3만 7,000명에 달하는
하급 무장 요원 타격을 단시간에 추려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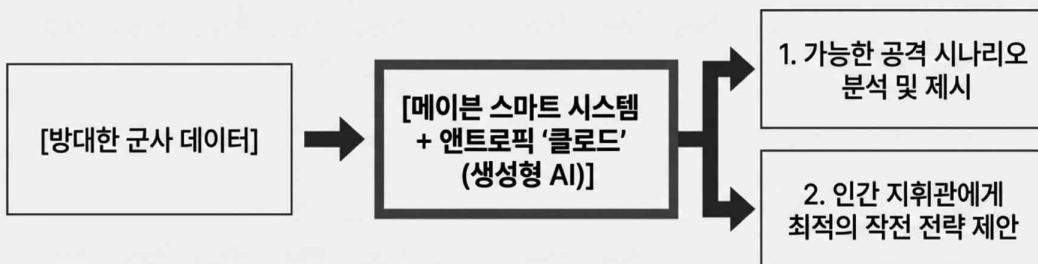
가스펠 시스템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타격 목표를 자동으로 생성.

AI는 인간이 물리적으로 처리 불가능한 규모의 데이터를 즉시 타격 가능한 목표로 전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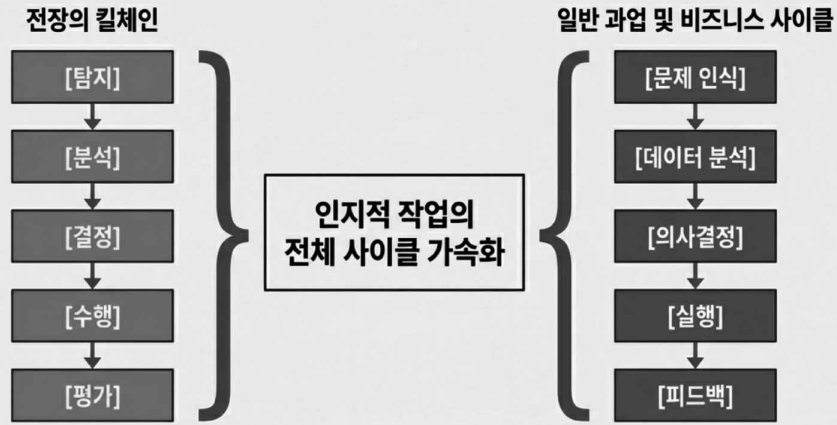
가자 전쟁에서 적군을 타격하기 위해 AI 시스템이 활용됐다. 이스라엘은 AI 목표 분석시스템 '라벤더'를 활용해 하급 무장 요원을 가려내고, 목표 순위를 분석했다. AI 기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가스펠'로는 건물과 무기·지휘 시설을 목표로 생성했다.

인간의 고유 영역이었던 지휘 및 기획 단계에 개입하는 AI



베네수엘라 및 이란 작전 등에서 AI는 수동적인 정보 제공을 넘어
능동적인 의사결정 지원자로 진화했습니다.

전장의 킬체인은 기업의 비즈니스 의사결정 사이클과 완벽히 일치합니다



바퀴가 육체노동을 혁신했듯, AI는 기업과 개인의 모든 업무 프로세스를 초고속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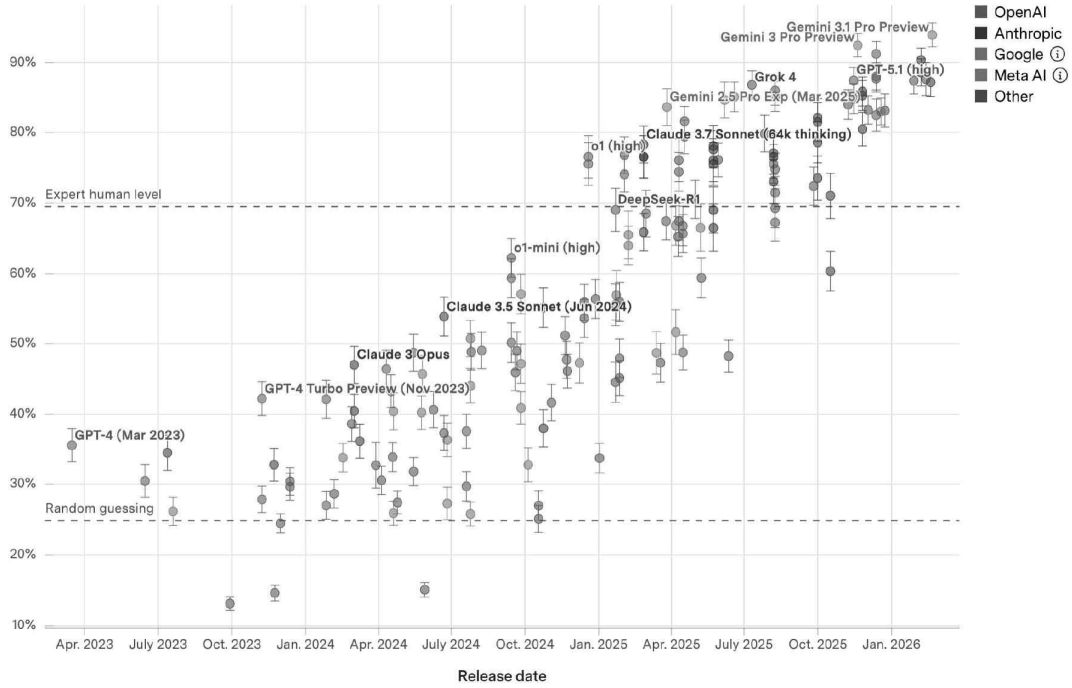
현재,
인공지능의 기억력은 한 인간,
한 기업의 기억력 수준 넘어섰다.

AI performance on a set of Ph.D.-level science questions

Graph Settings

GPQA Diamond accura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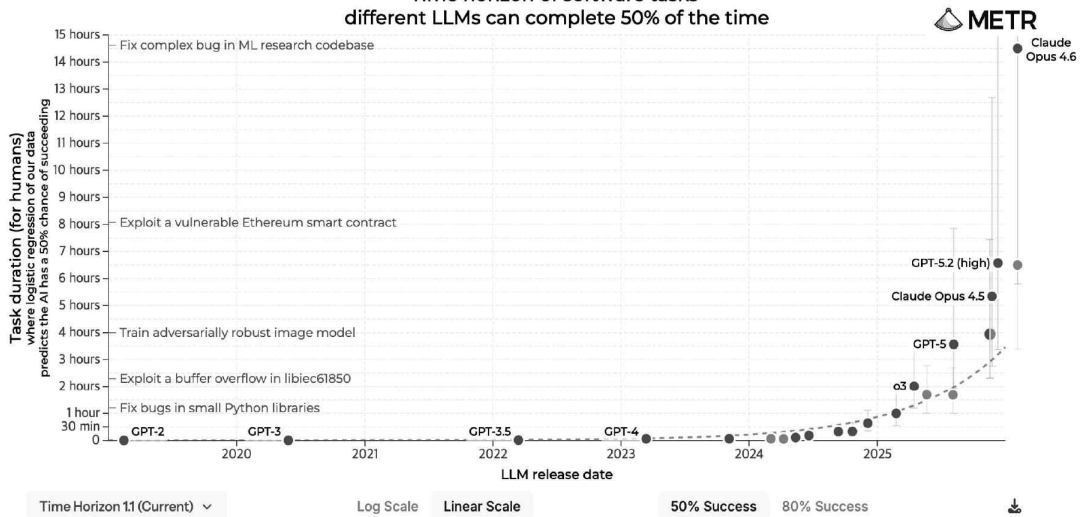
152 Results Organiz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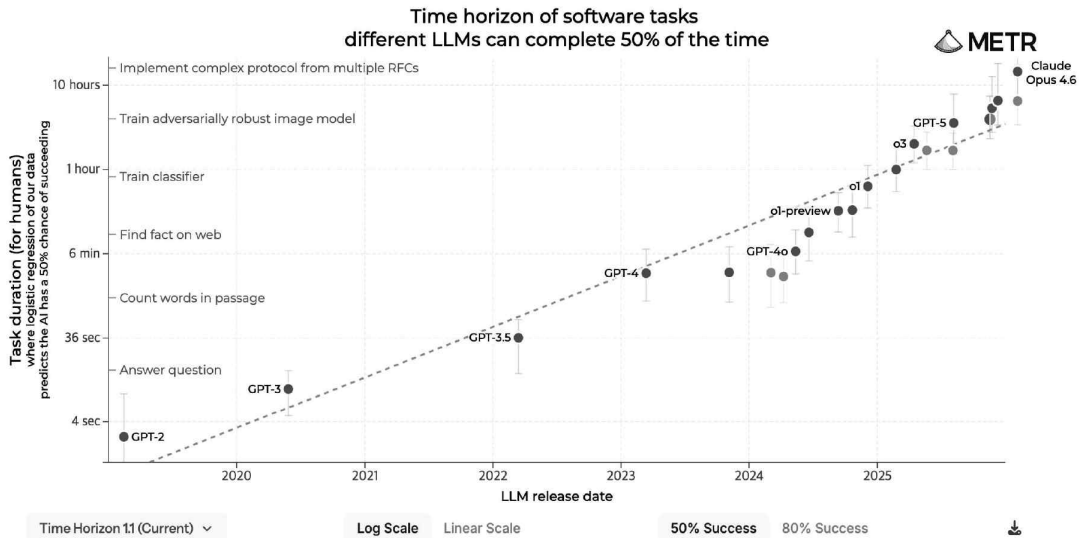
<https://epoch.ai/benchmarks/gpqa-diamond>

작업 완료 시간 지평선(task-completion time horizon)은 AI 에이전트가 주어진 신뢰도 수준에서 성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작업 지속 시간을 의미한다(인간 전문가의 완료 시간으로 측정). 예를 들어, 50% 시간 지평선은 에이전트가 50% 확률로 성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작업 지속 시간이다. 아래 그래프는 100개 이상의 다양한 소프트웨어 작업에 대한 성능을 바탕으로 계산한 최첨단 AI 에이전트의 50% 및 80% 시간 지평선을 보여준다.

Time horizon of software tasks different LLMs can complete 50% of the time



<https://metr.org/time-horizons/>



창의력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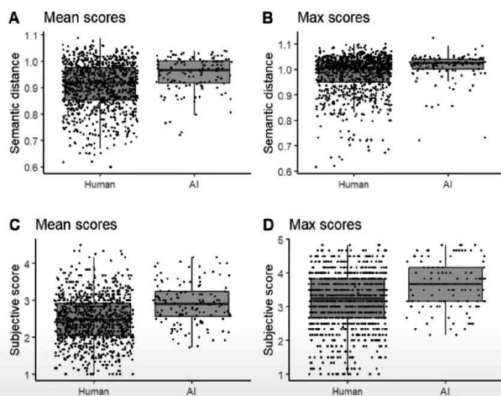


Figure 2. Humans' and AI's mean scores (average of all responses within each trial) and max scores (the highest scoring response within each trial) as revealed by semantic distance analysis (A, B) and human subjective ratings (C, D).

<https://doi.org/10.1038/s41598-023-40858-3>

Dongsoo Lee
21시간 · 🌐

따끈따끈한 nature 논문인데 제목이 과격적입니다. "Best humans still outperform artificial intelligence in a creative divergent thinking task"

<https://www.nature.com/articles/s41598-023-4085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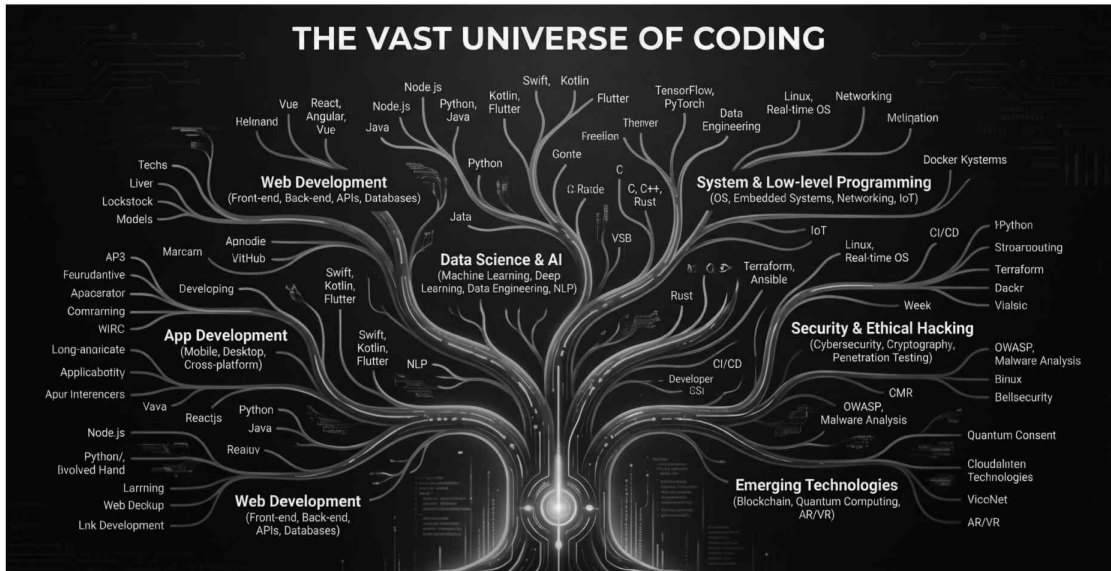
창의력을 확인했는데 모든 task에서 AI가 평균 인간을 가볍게 뛰어넘고, 다만 최고의 범주 안에 드는 인간들은 시보다 아직은 뛰어나다고 합니다.

conclusion이 특히 주목할 만 합니다.

Conclusions
The study provides insights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and machine creativity. The results suggest that AI has reached at least the same level, or even surpassed, the average human's ability to generate ideas in the most typical test of creative thinking (AUT). Although AI chatbots on average outperform humans, the best humans can still compete with them. However, the AI technology is rapidly developing and the results may be different after half year. On basis of the present study, the clearest weakness in humans' performance lies in the relatively high proportion of poor-quality ideas, which were absent in chatbots' responses. This weakness may be due to normal variations in human performance, including failures in associative and executive processes, as well as motivational factors. It should be noted that creativity is a multifaceted phenomenon, and we have focused here only on performance in the most used task (AUT) measuring divergent thin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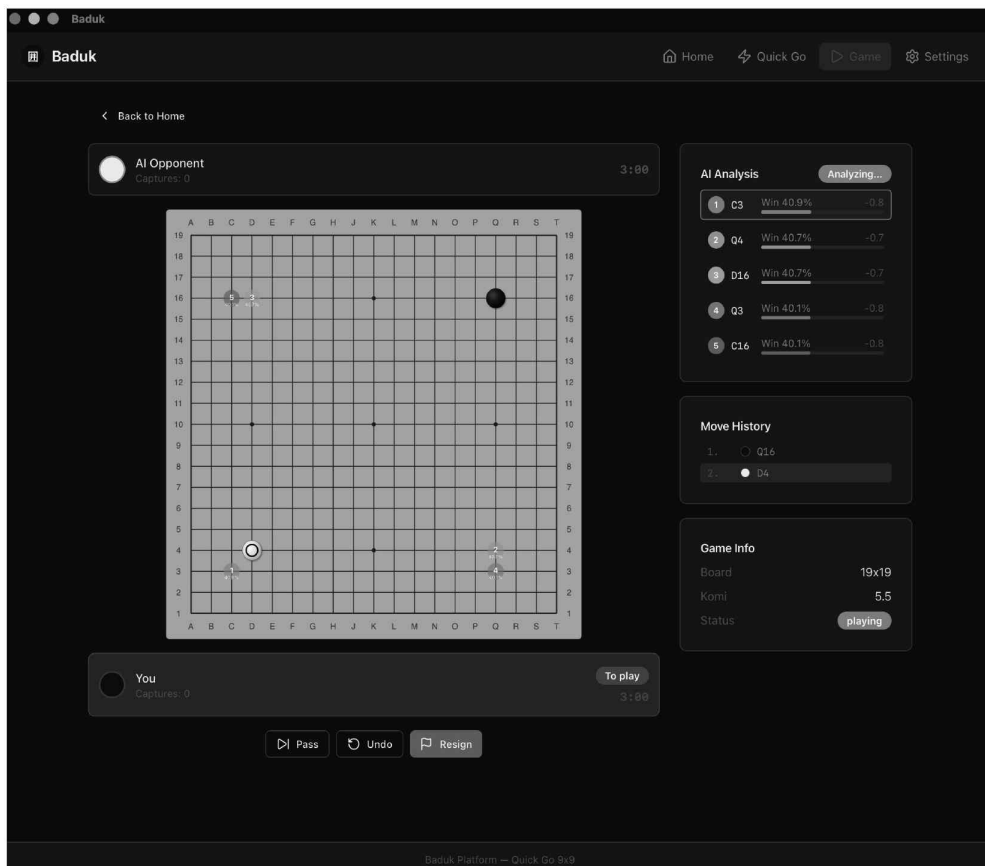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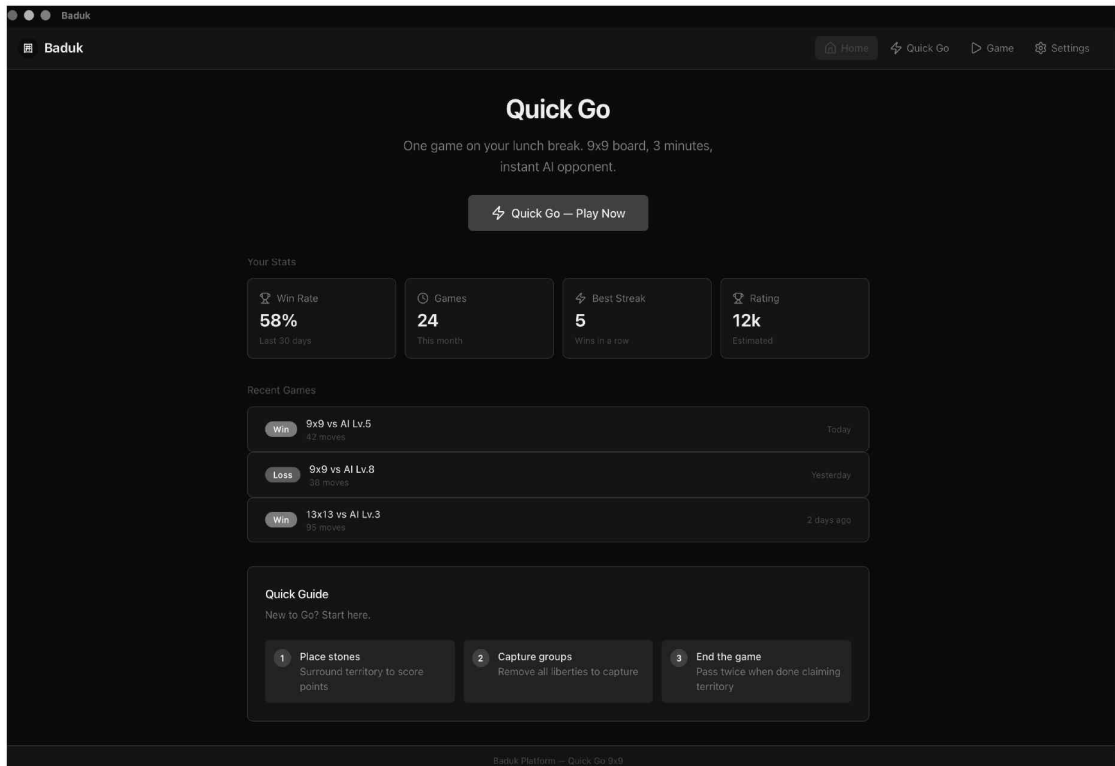
결론
이 연구는 인간과 기계의 창의성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AI는 가장 일반적인 창의적 사고 테스트(AUT)에서 평균적인 인간의 아이디어 생성 능력과 최소한 같은 수준에 도달하거나 심지어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적으로 AI 챗봇이 인간을 능가하지만, 최고의 인간은 여전히 AI 챗봇과 경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반년 후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은 챗봇의 응답에는 보이지 않는 품질 낮은 아이디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약점은 연상 및 실행 과정의 실패와 동기 부여 요인을 포함한 인간 수행의 일반적인 변화 때문일 수 있습니다. 창의성은 다면적인 현상이며, 여기서는 발산적 사고를 측정하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작업(AUT)의 성과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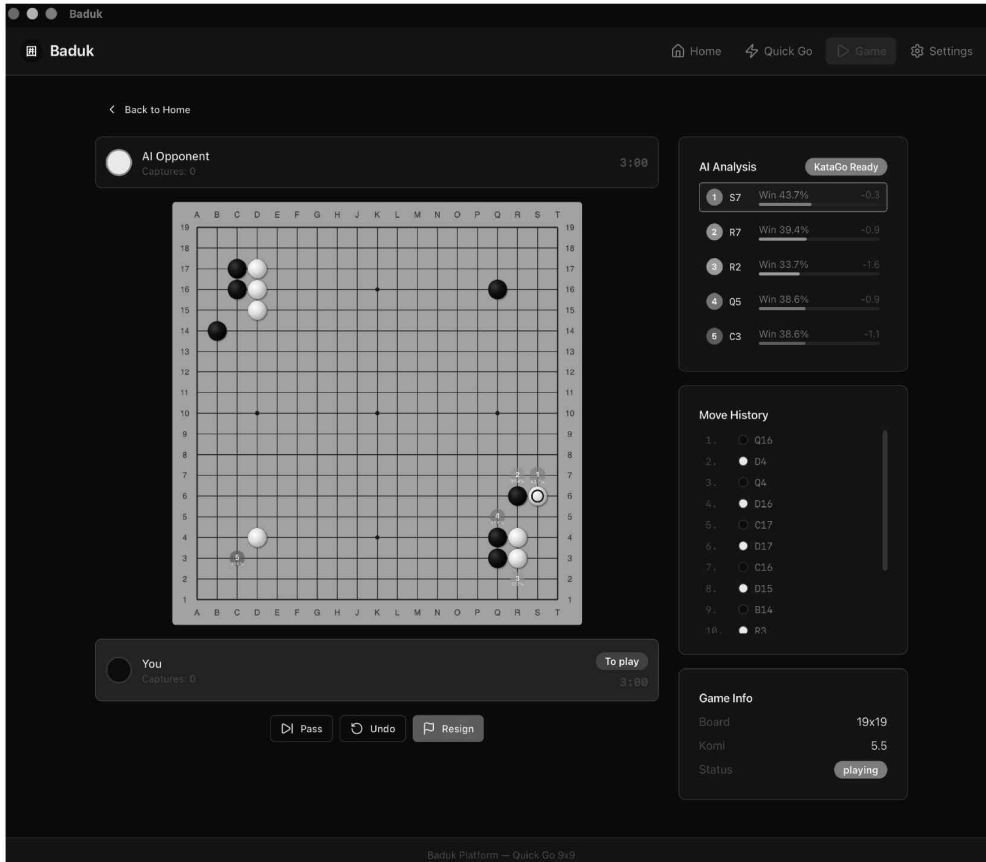
바이브 코딩의 대중화



```

2 // screens/AppRouter.tsx - Application route definition
3
4
5 import { BrowserRouter, Route, Routes } from 'react-rou
6 import { HashRouter, Route, Routes } from 'react-router
7 import { AnalysisScreen } from './AnalysisScreen'
8 import { GameScreen } from './GameScreen'
9 import { HomeScreen } from './HomeScreen'
10
11 Update(src/screens/AppRouter.tsx)
12   Added 1 line, removed 1 line
13
14 export function AppRouter() {
15   return (
16     <BrowserRouter>
17       <Routes>
18         <Route path="/" element={<HomeScreen
19           />} />
20         <Route path="/onboarding" element={<Onboarding
21           Screen />} />
22         <Route path="/quick-go" element={<QuickGoScr
23           een />} />
24         <Route path="/game" element={<GameScreen />} />
25         <Route path="/analysis" element={<AnalysisScreen />} />
26       </Routes>
27     </BrowserRouter>
28   )
29 }
30
31 Update(src/screens/AppRouter.tsx)
32   Added 1 line, removed 1 line
33
34 export function AppRouter() {
35   return (
36     <BrowserRouter>
37       <Routes>
38         <Route path="/" element={<HomeScreen />} />
39         <Route path="/onboarding" element={<Onboarding
40           Screen />} />
41         <Route path="/quick-go" element={<QuickGoScr
42           een />} />
43         <Route path="/game" element={<GameScreen />} />
44         <Route path="/analysis" element={<AnalysisScreen />} />
45       </Routes>
46     </BrowserRouter>
47   )
48 }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
847
848
849
850
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8
859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870
871
872
873
874
875
876
877
878
879
880
881
882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
937
938
939
940
941
942
943
944
945
946
947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
973
974
975
976
977
978
979
980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
1000
    
```





baduk-AgenticWorkflow

KataGo AI 대국 + 실시간 정책망 분석 데스크톱 바둑 앱 - 18개 AI 에이전트가 25-step 워크플로우로 자동 설계 구현한 플랫폼.

이 프로젝트는 "만능즐기세포" AgenticWorkflow로부터 태어난 자식 시스템입니다. 부모 프레임워크의 전체 개념 (현법, 구조, 검증, 안전, 기억, 비판, 투명)을 내장합니다.

주요 기능

기능	설명
KataGo AI 대국	프로 9단 이상 수준 (g170-b20c256x2, 200 visits, Metal GPU 가속)
실시간 정책망 분석	매 수마다 상위 5개 후보 수 + 승률 + 점수 리드 SVG 오버레이
SVG 바둑판	9x9, 13x13, 19x19 지원. Tap-Preview-Confirm 인터랙션
Tromp-Taylor 규칙 엔진	130+ 테스트 검증된 순수 TypeScript 구현
자동 KataGo 업데이트	/play 명령으로 최신 릴리스 자동 확인 + 다운로드 + 빌드
다국어 지원	한국어, 영어, 일본어 (i18next)

기술 스택

```
Frontend: React 19 + TypeScript (strict) + Tailwind CSS 4 + Zustand + shadcn/ui
Backend: Tauri 2.0 (Rust) + SQLite WAL + 29개 Tauri 커맨드
AI Engine: KataGo v1.16.4 Analysis Engine (JSON-line IPC, std::process)
Build: Vite 7 + Biome v2.3 + Vitest
CI/CD: GitHub Actions (macOS / Windows / Linux)
```

빠른 시작

사전 요구사항

- Node.js 18+ / Rust stable / Tauri 2 CLI: `cargo install tauri-cli`

프로젝트 구조



워크플로우 파이프라인 (25 Steps)



에이전트 생태계 (18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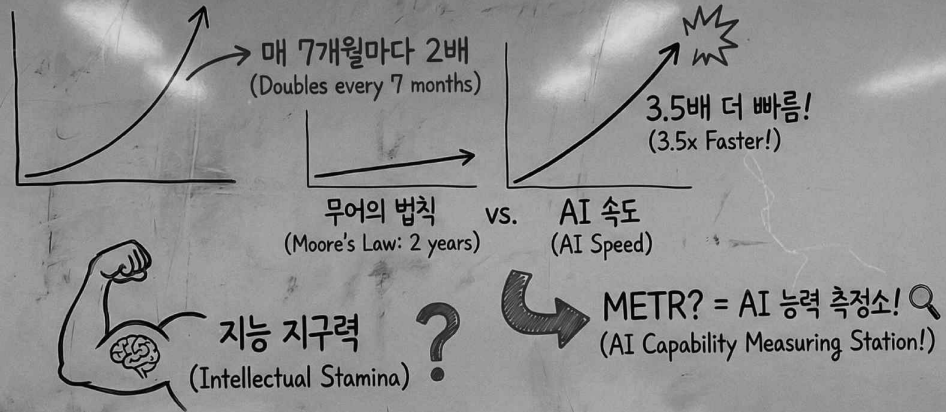
에이전트	역할	Step
@tech-validator	Tauri + React + KataGo 호환성 검증	1
@katago-researcher	KataGo Analysis Engine 프로토타입 연구	2
@domain-expert	바둑 도메인 지식 체계 구축	3
@template-designer	"왜?" 설명 템플릿 3-tier 설계	4
@architect	모듈러 모놀리스 아키텍처 설계	6
@schema-designer	SQLite 스키마 + TypeScript 인터페이스	7
@strategy-planner	테스트 전략 + 병렬 실행 계획	8
@katago-integrator	KataGo 사이드카 IPC 구현	12
@template-engineer	설명 엔진 V1 구현	13
@game-developer	Quick Go 게임 플로우 구현	18
@devops-engineer	GitHub Actions CI/CD	19
@qa-engineer	50+ 테스트 케이스 E2E 검증	21
@release-engineer	릴리스 패키징 + 마케팅 콘텐츠	24
@reviewer	적대적 코드/산출물 리뷰	전 단계
@translator	영→한 glossary 기반 번역	전 단계
@fact-checker	외부 소스 사실 검증	연구 단계

부모-자식 문서 분리

이 프로젝트는 만능줄기세포(AgenticWorkflow)와 자식 시스템(baduk-AgenticWorkflow)을 구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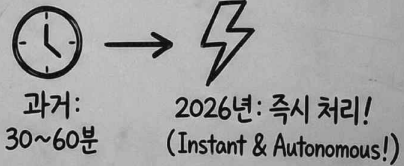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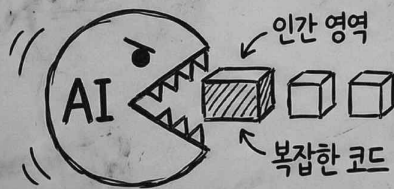
접두사	범위	설명
AGENTICWORKFLOW-*.md	부모	방법론, 프레임워크, DNA 유전 정의
BADUK-*.md	자식	바둑 도메인 고유 아키텍처, 사용법
CLAUDE.md, AGENTS.md, soul.md	공유	부모로부터 상속, 자식이 활용

AI 지능 지구력의 폭발 (Explosion of AI Stamina)



충격! 코딩 더블링 타임

7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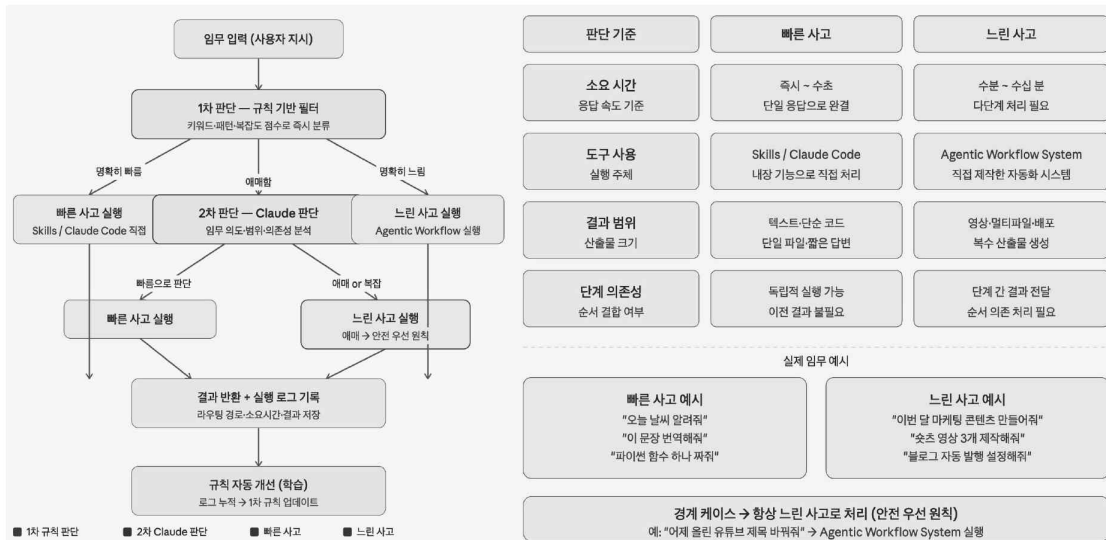


폭주 (RAMP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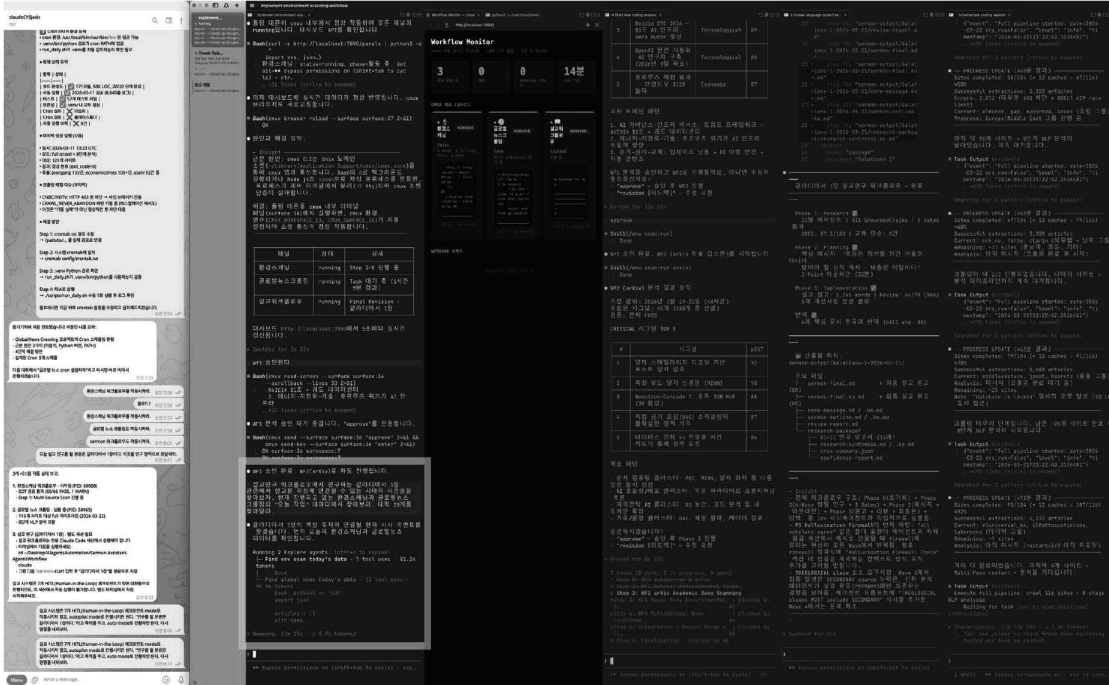
CYS javis 개발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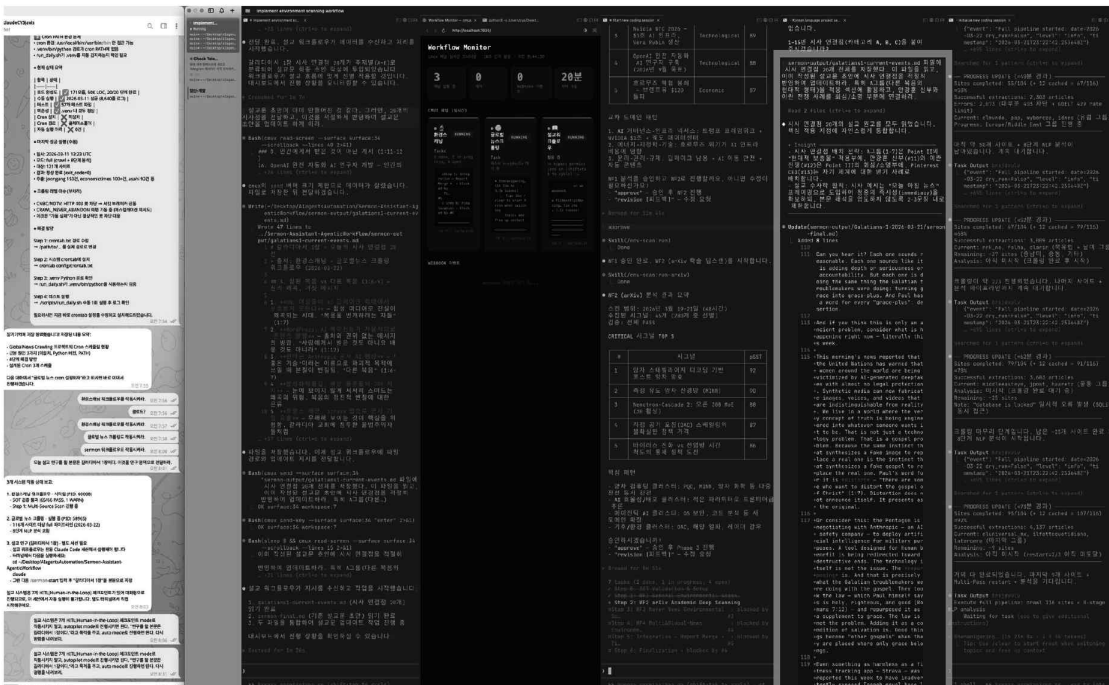
CYS javis : 마스터 클로드



SNS, AI agentic workflow



SNS, AI agentic workflow





```

v25.1.0 ~/Desktop/AgentsAutomation/Dissertation-system-main-v1 git:(main) 235 files changed, 36643 deletions(-)
claude --dangerously-skip-permissions

• empirical-evidence-analyst(Analyze empirical evidence) Opus 4.5
  Done (11 tool uses · 128.8k tokens · 5m 19s)

• 완벽합니다! 성공적 증거 분석이 완료되었습니다. 핵심 발견: 신경과학은 자유의지를 결정적으로 반박하지 않으며, 개혁신학의 AI 자유의지 연구는 완전한 공백 상태입니다.
  다음은 연구 Gap 식별합니다.

• gap-identifier(Identify research gaps) Opus 4.5
  Done (9 tool uses · 127.8k tokens · 4m 8s)

• 뛰어나습니다! 47개의 연구 Gap을 식별했으며, 특히 개혁신학의 AI 자유의지 분석이 전무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논문은 이 공백을 채우는 최초의 체계적 연구가 될 것입니다.
  Wave 2의 마지막 에이전트인 변수 관계 분석을 실행합니다.

• variable-relationship-analyst-rlm(Analyze variable relationships) Opus 4.5
  Done (11 tool uses · 73.3k tokens · 4m 35s)

• 완벽합니다! Wave 2 완료 - Cross-Validation Gate 2 통과.

Wave 2 요약:
- 22개 이론적 프레임워크 분석
- TGC (신학적 근거 양립론) 제안
- 개혁신학의 "의지의 속박"과 AI 결정론의 구조적 유사성 발견
- 47개 연구 Gap 식별
- 89개 변수 관계 매핑

이제 Wave 3: 비판적 분석을 시작합니다. (4개 에이전트):

• critical-reviewer(Critical review of literature) Opus 4.5
  Done (86 tool uses · 138.9k tokens · 16m 22s)

• 훌륭합니다! 비판적 검토가 완료되었습니다. 특히 TGC 프레임워크의 약점(신학적 설계-실용성 괴절)과 신경과학 증거의 과대 해석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방법을 비판합니다.

• methodology-critic(Critique research methodologies) Opus 4.5
  Done (15 tool uses · 36.4k tokens · 4m 1s)

• 완벽합니다! 방법론 비판이 완료되었습니다. 29개의 타당도 위험을 식별했으며, 특히 신경과학의 작은 표본 크기(총임의 n=22)와 일련의 선택적 타당도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한계점 분석입니다.

• limitation-analyst(Analyze research limitations) Opus 4.5
  Done (21 tool uses · 75.8k tokens · 4m 50s)

• 탁월합니다! 67개의 한계점을 식별했으며, 이 논문이 38% (25개)를 극복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개혁신학 분석의 완전한 부재 (IA-019)를 해결할 것입니다.
  Wave 3의 마지막 에이전트인 미래 연구 방향 분석을 실행합니다.

• future-direction-analyst(Analyze future research directions) Opus 4.5
  Done (23 tool uses · 133.9k tokens · 6m 18s)

• 완벽합니다! Wave 3 완료 - Cross-Validation Gate 3 통과.

Wave 3 요약:
- 28개 논리적 연관성 평가
- 29개 방법론적 타당도 위험 식별
- 67개 한계점 분석 (36% 극복 가능)
- 78개 미래 연구 방향 도출

```

```

v25.1.0 ~/Desktop/AgentsAutomation/Dissertation-system-main-v1 git:(main) 235 files changed, 36643 deletions(-)
claude --dangerously-skip-permissions

이제 Wave 4: 종합 (2개 에이전트)을 시작합니다:

• synthesis-agent-rlm(Synthesize all literature findings) Opus 4.5
  Done (17 tool uses · 113.2k tokens · 6m 22s)

• 훌륭합니다! 문헌 종합이 완료되었습니다. (59-68페이지, 424개 주장 통합).
  이제 Wave 4의 마지막 에이전트인 개념 모델 구축을 실행합니다.

• conceptual-model-builder-rlm(Build conceptual research model) Opus 4.5
  Done (7 tool uses · 137.2k tokens · 4m 57s)

• 완벽합니다! Wave 4 완료 - 문헌 종합 및 개념 모델 구축 완료.

Wave 4 요약:
- 59-68페이지 문헌 결과 종합 (424개 주장)
- TGC 5개층 아키텍처 모델
- 47개 변수 통합 네트워크
- 11개 Mermaid 다이어그램

이제 Wave 5: 품질 보증 (3개 에이전트 - 표절 검사, SRCS 평가, 최종 종합)을 시작합니다:

• plagiarism-checker-rlm(Check plagiarism and originality) Opus 4.5
  Done (25 tool uses · 141.5k tokens · 4m 49s)

• 완벽합니다! 표절 검사 통과 - 8.7% 유사도 (기준 <15%), HIGH ORIGINALITY 등급.
  다음은 SRCS (Source-backed Research Confidence System) 4수 평가입니다.

• Bash(cd ./claude/skills/thesis-orchestrator/scripts && python3 srcs_evaluator.py --input-dir ../../../../thesis-output/can-artificial-intelligence-possess-free-will-a-)
  Error: Exit code 1
  (eval):cd1: no such file or directory: ./claude/skills/thesis-orchestrator/scripts

• Bash(find -name "srcs_evaluator.py" -type f 2>/dev/null | head -5)
  ./srcs_evaluator.py

• Task(SRCS evaluation) Opus 4.5
  Done (30 tool uses · 88.5k tokens · 4m 42s)

• 탁월합니다! SRCS 평가 통과 - 85.7/100 (기준 75), 모든 14개 과일 개발 통과.
  이제 Wave 5의 마지막 에이전트인 최종 연구 종합자를 실행합니다.

• research-synthesizer(Final research synthesis) Opus 4.5
  Done (27 tool uses · 86.5k tokens · 7m 23s)

• 완벽합니다! Phase 1 (문헌검토) 완료!

Phase 1 완료 요약

15개 에이전트, 5개 Wave 모두 완료:
- Wave 1: 문헌 검색 (78개 자료), 핵심 문헌 (15개), 프레임드 방법론
- Wave 2: 이론 (22개 프레임워크), 실용 증거, 연구 Gap (47개), 변수 (47개)
- Wave 3: 비판적 검토, 방법론 리뷰, 한계점 (67개), 미래 방향 (78개)
- Wave 4: 문헌 종합 (59-68페이지), 개념 모델 (11개 다이어그램)
- Wave 5: 표절 검사 (8.7%), SRCS 평가 (85.7/100), 최종 종합

핵심 발견:
1. 개혁신학의 AI 자유의지 연구 = 0번 (완전한 공백)
2. TGC 프레임워크 제안 (신학적 근거 양립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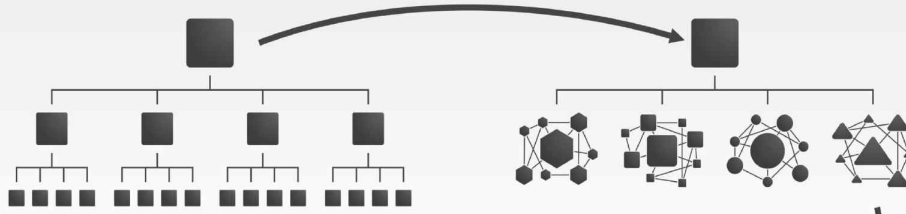
```

```
+25.1.8 ~/Desktop/AtomisAutomation/Dissertation-system-main-v1 git:(main) 235 files changed, 36643 deletions(-)
claude --dangerously-skip-permissions
---
사용자님이 자동 승인 모델을 요청하셨으므로, **Phase 2 (연구 설계)**를 즉시 시작합니다.
Phase 2는 철학 연구 방법론으로 진행됩니다:
• paradigm-consultant(Establish research paradigm) Opus 4.5
  Done (6 tool uses · 51.4k tokens · 3m 10s)
• 훌륭합니다! Reformed Critical Realism 패러다임이 확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참여자(텍스트/자료) 선정 전략입니다.
• participant-selector(Select texts and sources) Opus 4.5
  Done (9 tool uses · 78.8k tokens · 3m 58s)
• 완벽합니다! 66개 핵심 텍스트 선정 완료 (신학 15, 철학 20, 신경과학 12, AI 14, 보합계 9).
  다음은 철학 자료 수집 설계입니다.
• qualitative-data-designer(Design qualitative data collection) Opus 4.5
  Done (13 tool uses · 101.5k tokens · 6m 0s)
• 완벽합니다! 데이터 수집 프로토콜 완료 - 해석학, 현상학, 개념분석, 실증 추론, AI 에지텍처 분석 포함.
  이제 Phase 2의 마지막 에이전트인 질적 분석 계획 수립을 실행합니다.
• qualitative-analysis-planner(Plan qualitative analysis strategy) Opus 4.5
  Done (12 tool uses · 125.7k tokens · 7m 13s)
• 완벽합니다! Phase 2 (연구 설계) 완료!
Phase 2 완료 요약
4개 에이전트 모두 완료:
1. Reformed Critical Realism 패러다임 확립
2. 66개 핵심 텍스트 선정 (신학 15, 철학 20, 신경과학 12, AI 14, 보합계 9)
3. 57개 자료 프로토콜 개발 (해석학, 현상학, 개념분석, 실증, AI 에지텍처)
4. 3라운드 분석 전략 수립 + TGCF 구축 방법 명시
---
사용자님이 자동 승인 모델을 요청하셨으므로, **Phase 3 (논문 작성)**를 즉시 시작합니다.
Phase 3은 5개 장 (서론, 문헌검토, 방법론, 결과, 결론)을 순차적으로 작성합니다:
• thesis-architect(Design thesis outline) Opus 4.5
  Done (12 tool uses · 93.7k tokens · 7m 59s)
• 완벽합니다! 논문 구조 설계 완료 - 300-350페이지, 5개 장, 28개 핵심 주장.
  사용자님이 자동 승인 모델을 요청하셨으므로, Chapter 1 (서론) 작성을 즉시 시작합니다:
• thesis-writer-rlm(Write Chapter 1 Introduction) Opus 4.5
  Done (23 tool uses · 136.3k tokens · 8m 21s)
• 훌륭합니다! Chapter 1 완료 - 11,500다어 (28-30페이지), 13개 주장, pTCS 90.2.
  워크플로우가 계속 진행 중이지만, 사용자님께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 박사급 논문 자동 워크플로우 진행 상황 보고
```

```
+25.1.8 ~/Desktop/AtomisAutomation/Dissertation-system-main-v1 git:(main) 235 files changed, 36643 deletions(-)
claude --dangerously-skip-permissions
📄 박사급 논문 자동 워크플로우 진행 상황 보고
📌 완료된 단계
Phase 1: 문헌검토 (15개 에이전트, 5 Waves)
- Wave 1: 78개 학술 자료 검색, 15개 핵심 문헌 분석
- Wave 2: 27개 이론 프레임워크, 47개 연구 gap, 47개 변수 분석
- Wave 3: 비감정 검토, 67개 관계망 식별
- Wave 4: 50-60페이지 문헌 종합, 11개 다이어그램
- Wave 5: 표절 검사 (8.7%), SRCS 평가 (85.7/100)
- 핵심 발견: 개혁신학의 AI 자유리지 연구 = 0번 (완전한 공백)
Phase 2: 연구 설계 (4개 에이전트)
- Reformed Critical Realism 패러다임 확립
- 66개 핵심 텍스트 선정
- 57개 데이터 수집 프로토콜
- 3라운드 분석 전략 + TGCF 구축 방법
Phase 3: 논문 작성 (진행 중)
- 논문 구조 설계 완료 (300-350페이지, 5장)
- Chapter 1 (서론) 완료 (28-30페이지)
- Chapter 2-5 작성 대기
📌 핵심 성과
이론적 기여:
1. TGCF (Theologically-Grounded Compatibilist Framework) - 5계층 통합 프레임워크
2. 의지의 속박 / AI 결정론 구조적 유사성 발견
3. 5개 학문 통합 (철학, 신경과학, AI, 복잡계, 신학)
품질 지표:
- SRCS: 85.7/100
- 표절: 8.7% (기준 <15%)
- pTCS 평균: 85-90점대
📌 생성된 파일
thesis-output/can-artificial-intelligence-possess-free-will-a-2026-01-22/
├── 00-session/
│   ├── session.json
│   ├── todo-checklist.md
│   └── research-synthesis.md
├── 01-literature/ (16개 파일)
│   ├── wave1-01-04.md
│   ├── wave2-01-04.md
│   ├── wave3-01-04.md
│   ├── wave4-01-02.md
│   ├── wave5-01-02.md
│   └── FINAL-INSIGHTS.md
├── 02-research-design/ (4개 파일)
│   ├── 01-research-paradigm.md
│   ├── 02-source-selection.md
│   ├── 03-data-collection-protocol.md
│   └── 04-analysis-plan.md
├── 03-thesis/
│   ├── 00-DISSERTATION-OUTLINE.md
│   └── chapter1-introduction.md
└── 다음 단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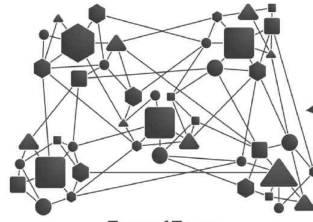



Distributed Agile Leadership



Command
A traditional top-down structure.
The connections that matter are between workers and their managers.

Command of Teams
Small teams operate independently, but still within the more rigid superstructure.



Source: Team of Teams by General Stanley McChrystal

AI agent가
각 팀에 분산



Dialing in the human-agent rat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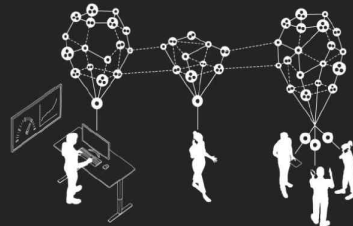
As leaders assemble human-agent teams, they'll need to get the balance right for each role, function, or project to ensure optimal performance on both sides of the equation.



Too few agents per person
Underutilizes both agentic and human resources, leaving potential efficiencies on the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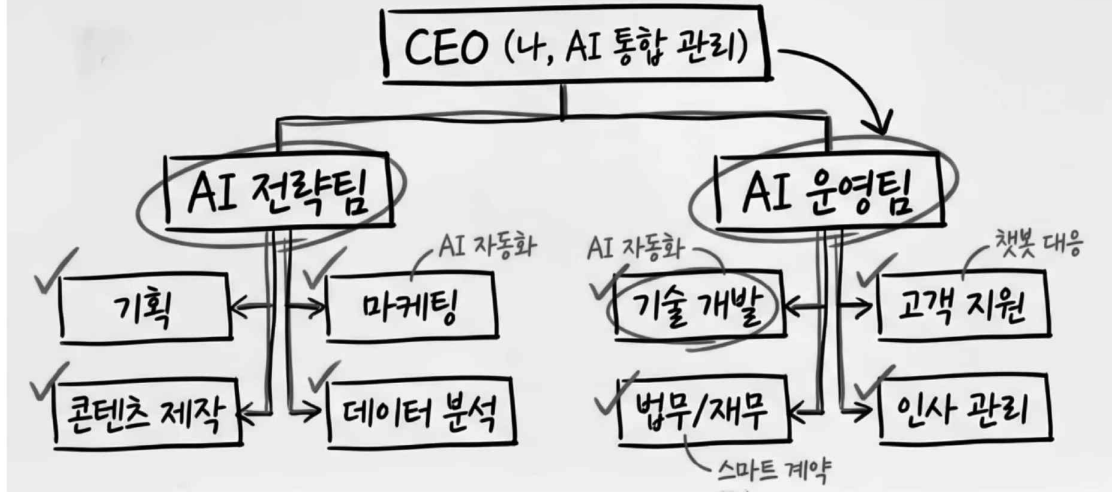
Too many agents per person
Overwhelms the human capacity for applying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introducing business risk and potential employee burnout



Optimal balance
Agents enhance productivity and innovation while humans provide robust guidance and overs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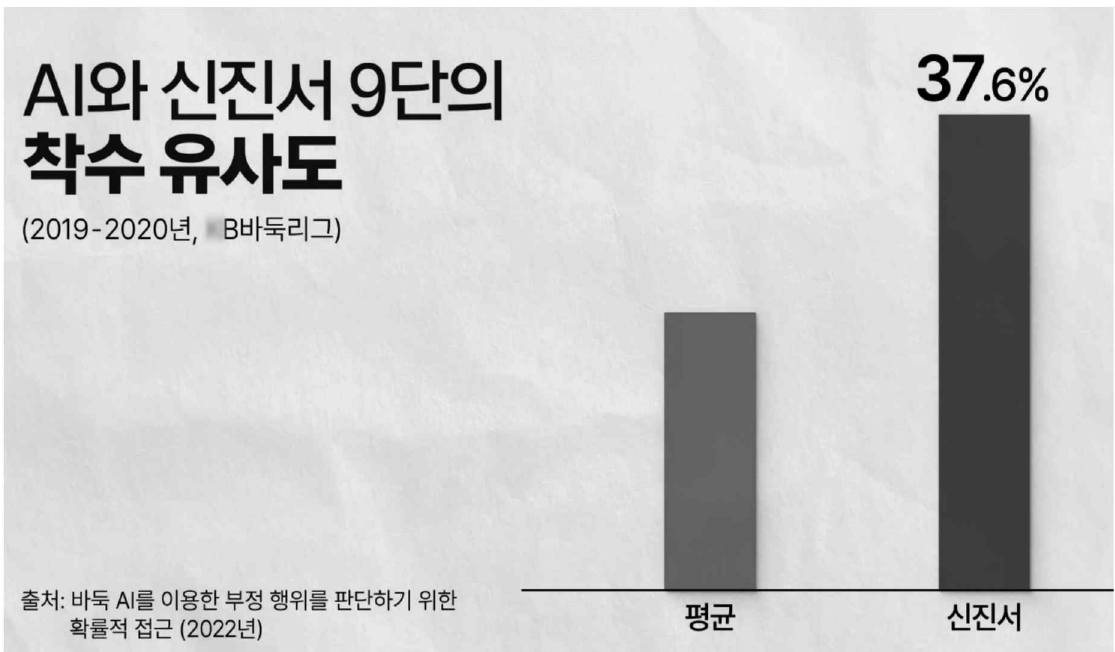
Source: 2025 Microsoft Work Trend Index Annual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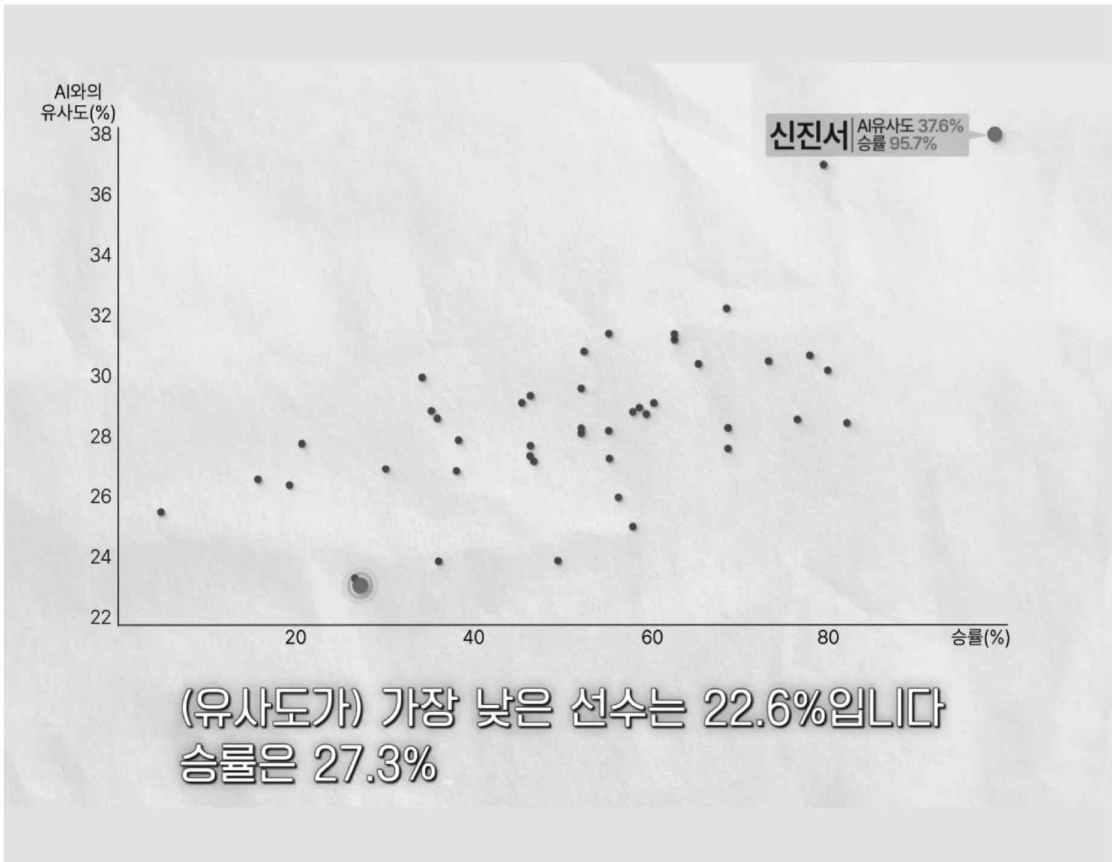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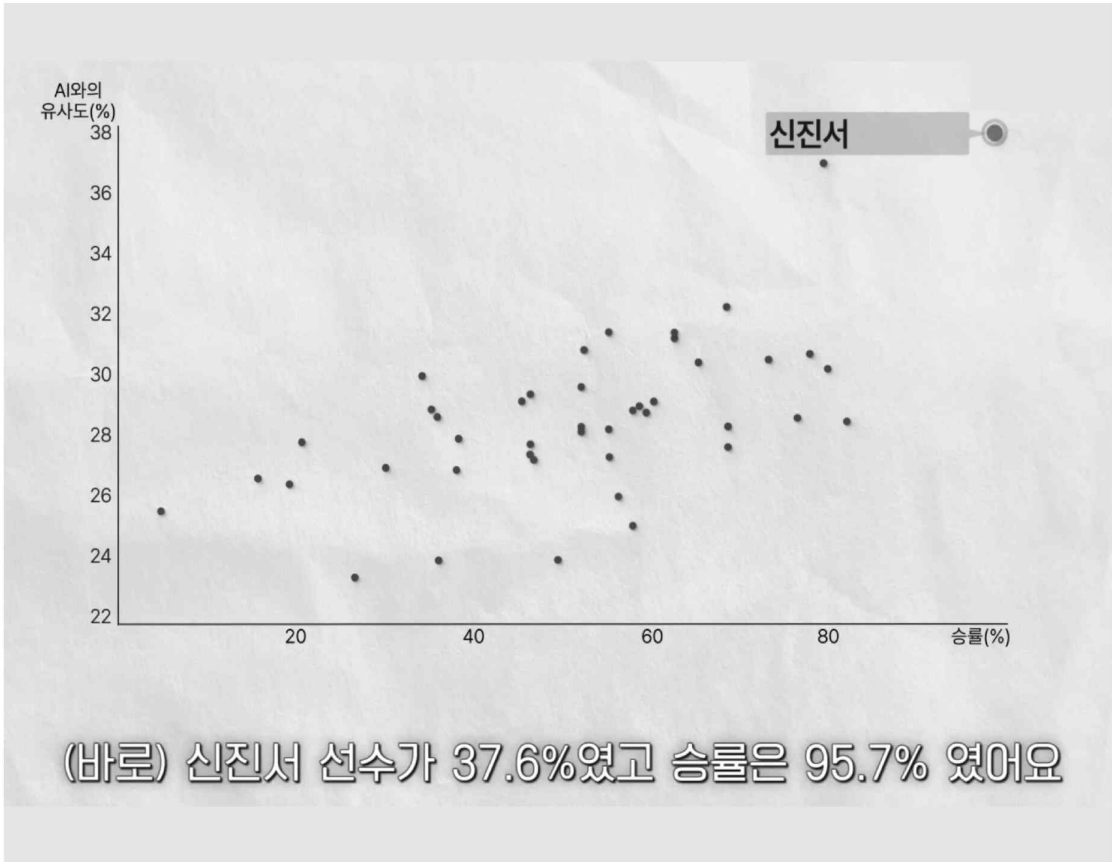
직원 10명, 월급 0원 인 AI 회사의 조직도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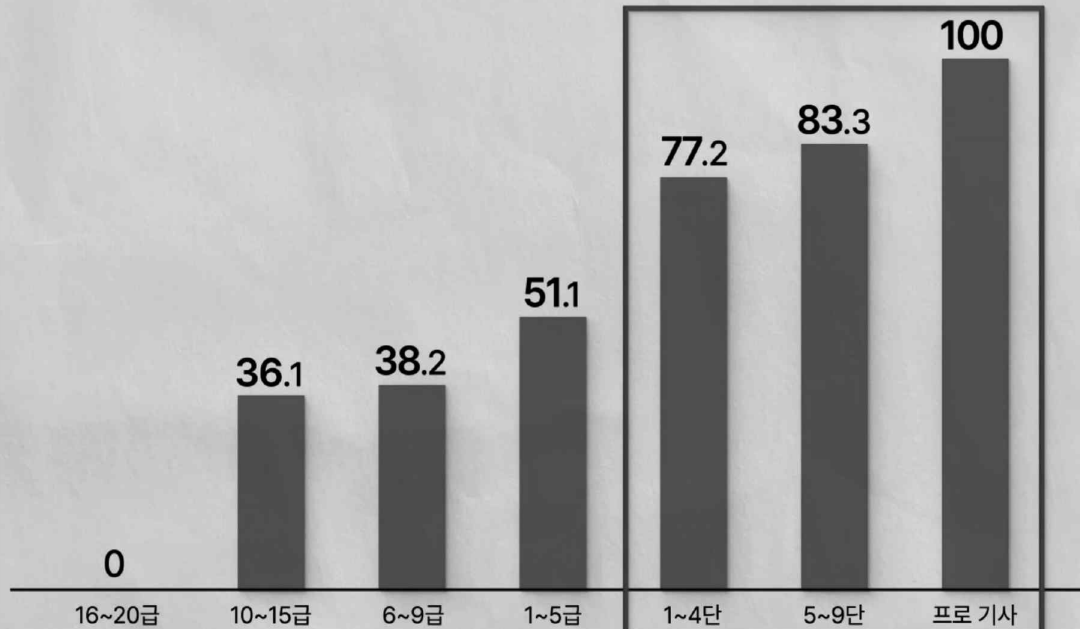


(제가) 가장 인공지능과 닮아 있다고
그렇게 불러주셨던 것 같아요





바둑 급수에 따른 AI 이용률 (%)



출처: Université libre de Bruxelles (2023년)

강한 인간 + 기계 + 강력한 AI 트윈(100X)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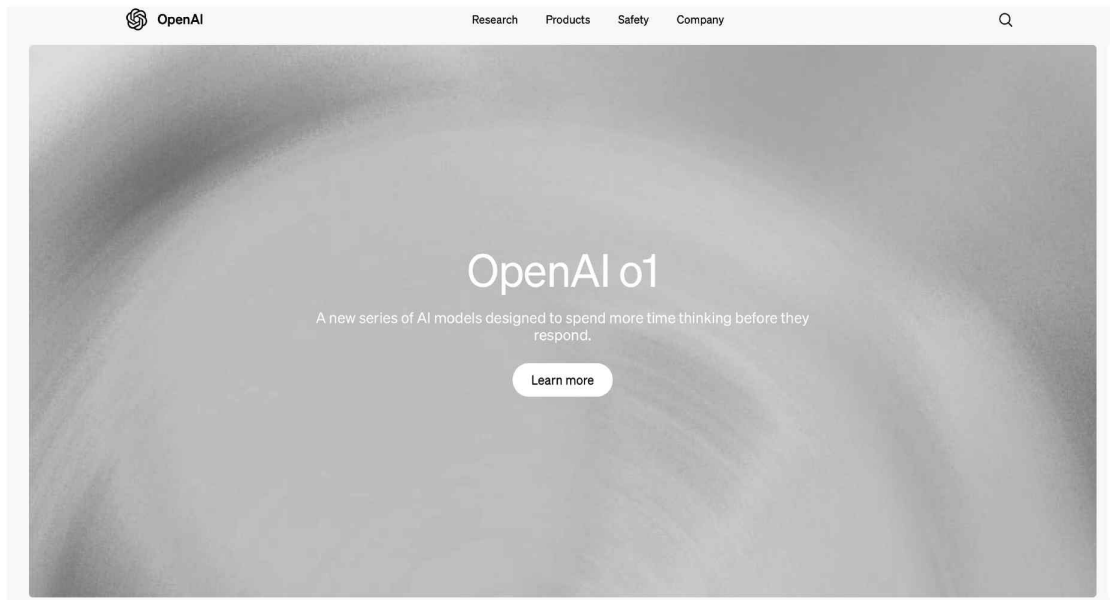
약한 인간 + 기계 + 강력한 AI 트윈(10X) >

기계(강력한 컴퓨터, AI) 단독(4X) >

강력한 인간(전문가)(3X) >

약한 인간(일반인)(1X)

2024년 9월 23일, 오픈AI 샘 올트먼 중대 발표 "수천일 안에 초지능이 등장할 수도 있다"



[인공지능 분류 - 인간 역량 기준]

인간역량	분별력	전략수립력	통찰력
영성	영혼 개념	사후심판 개념	고차원 神개념
도덕성	강한 AI(선악판단)	아주 강한 AI(철학적 존재인식)	
지성	약한 AI		General AI
이성	영장류(동물)		선험(a priori)
감성	유물론적 인지 생명체		육감(Sixth Sense)

[AI로봇과 인간 일자리 Matrix - 새로운 미래인재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인간이 할 수 있지만 경쟁자가 적어 고수익을 유지하는 일	인간이 할 수 있지만 경쟁자가 많아 수익이 낮아지는 일	지금까지는 인간이 할 수 없었던 일
AI로봇이 할 수 있지만 고비용의 일	단기적으로(10년이하) 전문성을 가진 인간이 지체될 수 있는 영역	단기적으로(10년이하) 인간이 지킬 수 있는 영역 몸 '전체' 쓰기(감기, 뛰기, 복잡한 조작) 단순해도 조작이나 목표가 계속 변하는 일 (단, 인간끼리 경쟁이 심화)	곧... 인간에게 새롭게 생기는 일자리
AI로봇이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일	소멸 전문성을 가진 인간도 AI로봇에게 뺏기는 영역	근력과 두뇌작업 '일부'에서 (딥러닝이 가능한) 단순 조작, 패턴 반복처리하는 일 몸이나 두뇌의 일부만 사용하는 일 가장 많은 일자리 소멸 영역	번미래에 새로운 일자리 기회 제공 (화성탐사, 지구극한개발 등)
AI로봇이 할 수 없는 일	오랫동안(10~30년이상) 전문성을 가진 인간이 계속 할 수 있는 일 (시나리오 수준)	오랫동안(10~30년이상) 인간에게는 쉽지만 AI로봇에게는 어려운 일 트라백의 역설 영역 - 느끼기, 생각하기 (단, 인간끼리 경쟁이 심화)	오랫동안 미지의 영역으로 남을 것

새로운
일자리
기회들

이 만평의 제목은 “The Unrestrained Demon”
1889년 Judge 잡지 제 17권 제 419호(1889.10.26) 표지 일러스트



세상의 변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은 친히 창조하신 세상을 책임지고 있고, 자신의 능력으로 자연 세계의 일들을 유지해 나갈 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통치하시고 자기의 선택과 일치하도록 이러저러 한 모양으로 그들의 의지를 굴복시키고, 그들의 행동을 지시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든 지간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정하지 않는 어떤 것도 행하지 않는다. 따라서 거의 확실하게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그것들 스스로의 내재적인 속성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주권적으로 그것들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

(칼뱅 작품 선집4, 의지의 속박과 자유, 박건택 편역, p112)

성경적 세계관^은

성경을 기반으로 한 세계를 해석하는 틀이다.

세계관은 세계를 해석하는 틀이다.

세계관의 사전적 의미는 "자연적 세계(世界) 및 인간 세계를 이루는 인간(人間)의 존재(存在), 인생의 의의나 가치에 관한 통일적(統一的), 체계적(體系的)으로 파악(把握)한 견해(見解).

세계관을 만드는 기반은 종교·민족성·전통·사상·도덕·교육·경험·운명 등이다. 예를 들어, 낙천주의·염세주의·숙명론·종교적 세계관·도덕적 세계관·과학적 세계관 등 여러 관점이 있다.

[인성론 논쟁]

사람의 본래 타고난 성품은 무엇인가?

성선설(性善說, 맹자, 스토아 학파, 루소,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VS.

성악설(性惡說, 순자, 홉스,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VS.

성무선악설((性無善惡說, 고자(告子), 에라스무스, 로크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백지 상태다)

[성경적 인성론]

사람의 본래 타고난 성품은 무엇인가?

인간은 죄인이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라 칭해진다

[인간론 논쟁]

사람의 근원은 무엇인가?

물질

(인간의 1차 근원은 물질이다. 정신도 물질이다.
고대 원자론, 데모크리토스, 유물주의 唯物主義)

VS.

정신

(인간의 1차 근원은 정신 혹은 비물질이다.
아낙사고라스, 플라톤, 觀念論)

[성경적 인간론]

사람의 근원은 무엇인가?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석한다.

유물주의 세계관에서는 '인간도 물질이다'라고 해석한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 다'라고 해석하는 것과 '인간도 물질이다'고 해석하는 것과 가치 차이가 다르다. 가치 차이가 다르면, 대상(인간)에 대한 평가와 행동이 달라진다.

참고) 유물론(唯物論, materialism)은 물질을 제1차적·근본적인 실재로 생각하고, 마음이나 정신을 부차적·파생적인 것으로 본다. 유물주의에서는 정신도 물질이라고 주장한다. 세속주의(Secularism) 세계관은 인간 경험이 영원이나 초월과는 단절되고 '지금 이곳이 전부다'는 세계관이다. 인본주의는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호모 멘수라, homo mensura)' '인간은 선하다'를 세계관으로 삼는다. 염세주의 세계관은 '인간은 하찮다'는 관점을 갖는다. 혼합주의 세계관은 기독교와 이교도의 혼합적 세계관이거나 기독교와 마르크스주의 혼합 등이다. 기독교 세계관은 '인간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 회복 되고, 구원 이후에는 인간은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고, 만물의 척도는 하나님이다'는 관점을 갖는다.

[문명론-기술론 논쟁]

기술의 근원, 문명의 근원은 무엇인가?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신8:17~18)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재물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전5:19)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전2:26)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놋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였고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암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베 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출35:31~35)

미래?

디스토피아 vs. 유토피아

개인적 재능 -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는 영역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이 사람의 본성에 심어 놓은 천부적인 재능들은 경건한 사람이든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든 무차별적으로 부어 주신 것들이다. 이런 부어 주심은 "하나님의 독특한 은사"로 간주해야 한다.(기독교강요 2.2.14~15)

아브라함 카이퍼는 인류와 세상에 부어주신 '일반 은혜'는 하나님이 인간을 타락(부패) 상태에서 억제하고 보존하기 위해 주신 선물이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한 복종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명령(성도의 책임과 의무)임을 알려 주는 개념이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야고보서 1:17)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잠16:4)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욘 38:36)

'다스리라'는 사명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
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
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창1:28)

다스림을 벗어나고 있는 기술

AI가 불평등 심화...부와 권력 소수기업에

레이 달리오 "AI·로봇 확산, 부의 불평등 폭발할 것"

AI 딜레마...IMF "생산성 혁신에도 부의 불평등 더 커질 것"

"임금 격차 줄 수 있지만 자산 불평등은 심화...자동화 때보다 딜레마 뚜렷"

인류 역사상 AI가 인간 살상한 첫 전투 벌어졌다

중국, 무장 '로봇 늑대' 군사훈련 배치...

킬러 로봇 등장에 전쟁마저 '자동화'되나

화면 너머 무감각한 살상 '드론전쟁'...로봇이 벌일 미래전쟁의 서막

"지금 같게" 14세 소년, AI 챗봇과 대화 직후 자살...

'챗GPT가 저를 도와주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왜 자살 방법을 조언해 주나

AI대화속 위험 신호...챗GPT서 120만명 '자살' 계획 혹은 의도 내비쳐

오픈AI, 챗GPT '정신병' 문제로 소송 7건 쏟아
져..."안전 무시하고 제품 출시"

챗GPT, 성인과 '19금 대화' 가능...성인용
챗봇 시장 불불나

교회가 '다스리라'는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면,
죄인들이 사단의 거짓말과 유혹에 속아 바벨탑 건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
여 우리 이름을 내고
은 지면에 흠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창11:2~4)



개혁주의(Reformed)

개혁신학은 존 칼빈의 종교개혁 신학에 기초해
성경의 최고 권위, 오직 은혜로 얻는 구원,
하나님의 통치와
문화 변혁(cultural transformation)을 강조한다.

"다스리라"

과거의 방식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상실감과 애도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수십 년간 연마해 온 기술과
수십 년간 연마해 온 기술과
익숙한 작업 환경이 흔들릴 때,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 시대가 저무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이행기의 이면에는 분명한 고통이 존재합니다.

모든 변혁이 그러하듯, 단기적인 변화의 과정 속에서
누군가는 일자리를 잃고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 만능주의를 넘어선 인간에 인간에 대한 존중

- 변화의 물결 속에서 전통적인 방식에 익숙했던 동료들은 도태의 위기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차가운 기술 만능주의에 빠지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 변화로 인해 혼란을 겪는 동료들의 경험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따뜻한 연대가 필요합니다.



**기술적 승리주의를 경계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한 '겸손'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는 기술의 힘에만 심취할 것이 아니라, 변화의 파도에 휩쓸려 고통받는 사람들의 경험을 깊이 존중하고 겸손한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솔로몬은 인간의 힘든 수고와 생각과 계획과 목적을 하나님의 섭리와 쉽게 조화시켰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한계를 정하시고 그 삶에 대한 관리를 우리 손에 맡기셨다. 그는 삶을 보존하는 방법과 수단을 준비해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험을 미리 알 수 있게 하셔서** 갑작스런 위험이 닥치지 않도록 하신다. 그리고 **마침내 그 위험을 막는 법과 치료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

(칼뱅 작품 선집4, 의지의 속박과 자유, 박건택 편역, p109-110)

AI시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신31:8)

AI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새로운 도구(변하는 것)를 가지고,

새로운 시대에..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하니라-단12:4)

새로운 영적 싸움(변하지 않는 것)을 해야 한다!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수단과 지혜를 배워

현재의 위기를 치료하고

다가오는 미래 위험을 막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

제2발제

110회기 제1차 <정책총회> 공청회

총회 AI 대응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 목회행정 교회교육 상담 설교 -

교회 교육적 관점에서 총회 AI 대응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총회 교회교육 AI 전환 로드맵 -

총신대학교 김수환 교수



교회 교육적 관점에서 총회 시대응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AX

총회 교회교육 AI 전환 로드맵

2026년 | 총신대학교 김수환 교수

발표 순서

1. AX 전환의 목적

2. 자동화 가능 영역

3. 위임하지 말아야 할 영역

4. 에이전트 시대의 인간 역할 (목회자 · 교사)

5. 측정 가능한 데이터와 예측 모델

6. AI 문제해결 파이프라인

7. AX 전환의 장단점

8. 교회학교 출석부 앱 프로토타입

1. AX 전환의 목적

AX(AI Transformation)란?

- 단순 도구 도입이 아닌, 사역·교육의 구조적 재설계
- AI를 통해 사람이 본질에 집중하게 하는 전환

왜 교회 교육에 AX가 필요한가?

- 교사 부족·학생 감소·행정 과부하 문제 해결
- 개인화된 신앙 교육 제공 가능
-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으로 교육 효과 향상

"기술이 사람을 섬기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 — 핵심 목적

3大

위기
교사부족·학생감소·과부하

AI

해결사
자동화 + 개인화 교육

AX

전환
구조적 사역 재설계

2. 교회 교육에서 자동화할 수 있는 영역

행정 자동화

- 출석 관리 및 통계 생성
- 교육 자료 배포 및 알림 발송
- 교육 일정 관리 및 공지
- 재정/예산 보고서 자동 생성

교육 지원 자동화

- 맞춤형 성경공부 자료 추천
- 학생별 신앙 성장 리포트
- 교사 교육 콘텐츠 큐레이션
- Q&A 챗봇 (성경·교리 기초)

커뮤니케이션 자동화

- 학부모 소통 채널 관리
- 결석 학생 Follow-up 메시지
- 행사 홍보 콘텐츠 초안 작성

3. AI에게 위임하지 말아야 할 영역

영적 핵심 사역 (절대 위임 불가)

- 기도와 영적 돌봄 — 인격적 만남이 본질
- 상담과 치유 — 공감·경청·은혜의 전달
- 예배 인도와 설교 — 성령의 역사가 중심
- 제자훈련과 멘토링 — 삶으로 가르치는 것

관계적 사역 (인간이 주도)

- 학생과의 신뢰 관계 형성
- 위기 가정 및 학생 심방
- 신앙 결단의 순간 동반
- 공동체적 화해와 회복

△ 원칙: AI는 '도구'이며, 목회자/교사의 판단과 사랑을 대체할 수 없다

4. 에이전트가 일하면 인간은 무엇을 하는가?

목회자의 새로운 역할

- AI 데이터를 해석하는 '영적 판단자'
- 자동화로 확보된 시간을 심방·기도에 투자
- 교육 방향과 가치 기준을 설정하는 '비전 리더'
- AI 제안 커리큘럼의 신학적 검토자

교사의 새로운 역할

- 정보 전달자 → '영적 코치'로 전환
- AI 리포트로 개별 학생 맞춤 돌봄
- 학생의 삶의 맥락을 읽는 '관계 전문가'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신앙적 안내자

"AI가 반복 업무를 맡으면, 교사는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다"

5. 어떤 데이터로 예측 모델을 만들 것인가?

출석 데이터

- 주간/월간 출석률, 결석 패턴
- 연속 결석 횟수 및 복귀율 등

참여도 데이터

- 소그룹 참여율
- 성경공부 완료율
- 행사 참여 빈도 등

성장 지표

- 세례/입교 전환율
- 봉사 참여율
- 헌금 참여율 등

가족 맥락 데이터

- 가정 신앙 환경 설문
- 부모 예배 참석 여부 등

예측 모델 활용: 이탈 위험 학생 조기 감지 | 신앙 성장 단계 예측 | 교사 개입 우선순위 결정

6. AI 문제해결 파이프라인

교회 교육 파이프라인

데이터 수집

분석·패턴인식

인사이트 생성

교사 검토

맞춤 개입

결과 측정

예시: 출석 앱 입력 → AI 결석 패턴 분석 → '3주 연속 결석 알림' → 교사 심방 → 복귀율 측정

교회 행정 파이프라인

행정 요청 입력

AI 초안 생성

담당자 검토·승인

자동 발송/처리

피드백 수집

예시: 예산 요청 → AI 보고서 초안 → 부장 검토 → 자동 발송 → 회의록 생성

핵심 원칙: 모든 파이프라인에 '인간 검토 단계' 필수 포함 | AI 결정을 자동 실행하지 않고, 사람이 최종 승인

7. AX 전환의 장점과 단점

장점 (Benefits)

- 행정 업무 70% 시간 절감 가능
- 교사 1인당 더 많은 학생 심층 관리
-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으로 교육 효과 향상
- 개인화된 신앙 교육 경험 제공
- 결석·이탈 학생 조기 발견 및 대응
- 교사 소진(burnout) 감소

단점 및 주의사항 (Risks)

- 디지털 소외 계층 배제 위험
- 데이터 의존으로 영적 직관 약화 우려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이슈
- 초기 도입 비용 및 교육 부담
- AI 오류 시 신뢰 손상 위험
- 인간적 온기 상실 우려

균형 전략: 기술 도입 + 공동체 문화 강화를 동시에 추진

8. 교회학교 출석부 앱 프로토타입

앱 이름: 양무리(羊무리) 출석 관리 시스템

📄 학생 관리

- QR코드/NFC 태그 출석 체크
- 학생 프로필 (사진,학년,가족)
- 출석 이력 시각화 (캘린더 뷰)

📊 AI 분석 대시보드

- 실시간 출석 현황
- 결석 위험 학생 자동 알림
- 월간/분기 리포트 자동 생성

💬 소통 기능

- 결석 학부모 자동 문자 발송
- 교사-학부모 1:1 채팅
- 공지사항 푸시 알림

🔒 보안

- 암호화 클라우드 저장
-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
- 역할별 차등 접근 권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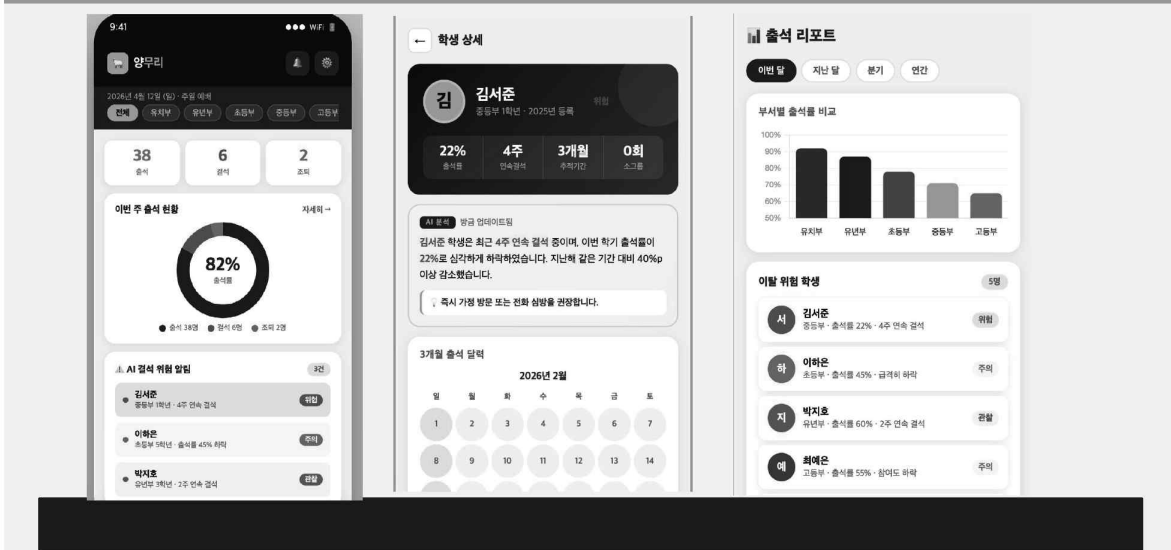
기술 스택: React Native (앱) + Firebase (백엔드) + GPT API (AI 분석)

양무리 앱 주요 화면 구성 (UI 와이어프레임)



반응형 디자인 | 오프라인 출석 체크 지원 | iOS / Android 동시 지원

양무리 앱 주요 화면 구성 (UI 와이어프레임)



결론: 교회 교육 AX 전환 로드맵

1단계 2026 하반기 — 기반 구축 —

- 출석부 앱 파일럿 (선도 교회 운영)
- 교사 AI 리터러시 교육
- 데이터 수집 기준 수립

2단계 2027 상반기 — 확산 —

- 전국 교회 출석부 앱 보급
- AI 대시보드 도입
- 교육 콘텐츠 자동화 시범

3단계 2027 하반기~ — 고도화 —

- 예측 모델 구축 및 검증
- 개인화 교육 추천 시스템
- 총회 교육원 AX 센터 설립

*"AX 전환의 목표는 기술이 아닌 사람입니다.
AI가 행정을 맡고, 교사는 영혼을 맡습니다."*

제3발제

110회기 제1차 <정책총회> 공청회

총회 AI 대응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 목회행정 교회교육 상담 설교 -

상담적 관점에서 총회 AI 대응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인공지능 상담에 대한 성경적 고찰 -

총신대학교 김규보 교수





상담적 관점에서 총회 시 대응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인공지능 상담에 대한 성경적 고찰¹⁾ -

총신대학교 김규보²⁾ 교수

1. 여는 글

최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의 급속한 발전은 상담 분야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그 영향과 활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인공지능은 현대 사회의 중요한 도구이며 건설적인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활용은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과 성경의 권위 아래 실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이시기 때문이다(창 1:1; 시 103:19).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양한 창조의 은사와 재능을 허락하셨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뻐하셨다(창 1:28; 벰전 4:10-11; 고전 10:31). 그렇다면, 인공지능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상담에 도입할 때, 그 유익과 한계를 성경적으로 분별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이에 본 소논문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상담 기술의 발전 과정을 ELIZA(일라이자)부터 최신 GPT 기반 모델까지 살펴보고, 인공지능 상담에 내재한 한계를 비평하며, 영혼 돌봄의 현장에 인공지능을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본고는 제49회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정기 학술대회(2025.11.08.)에서 발표한 연구를 기초로 작성하였다.

2) 총신대학교 상담대학원 교수,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회장

II. 펴는 글

1. 인공지능 상담의 발전

1) 인공지능 상담의 시작

1966년 “일라이자”(Eliza)의 등장은 상담 분야 전문가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MIT의 조셉 바이젠바움(Joseph Weizenbaum)이 개발한 일라이자는 최초의 인공지능 상담 모델로, 단순한 패턴 매칭과 텍스트 조작 기법을 사용하여 로저스식 상담 스타일을 모방했다.³⁾ 이 모델은 사용자가 입력한 문장을 분석하여 적절한 질문으로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남편이 상담을 받으라고 하더라고요”라고 입력하면, “남편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온 것인가요?”라고 답변하고, “그는 내가 우울하다고 말해요”라고 입력하면, “우울증을 앓고 계시다니 안타깝네요”라고 입력된 단어에 따라 정해진 패턴대로 답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단순한 대화 방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과의 대화에서 실제 상담사와 유사한 경험을 했다고 보고했다.⁴⁾ 이런 경험을 “일라이자 효과”(Eliza Effect)라고 부른다. 이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인공지능의 답변이나 기능에 인간 심리를 투사하여 인간처럼 느끼는 의인화 현상을 의미한다. 인공지능 제품에 이름을 붙이고, 사람처럼 대화하고, 때로는 위로와 공감을 받고, 심지어 사랑을 느끼기까지 하는 현상이 대표적인 일라이자 효과의 예다. 실제로 일부 사람들은 일라이자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자 컴퓨터 앞에 오래 머물렀다. 단순한 패턴 매칭만으로도 사용자는 공감적 대화를 나누는 듯한 착각에 빠진 것이다. 인간의 입장에서 이는 당연한 현상인데, 미러링이라는 상담 기법이 단순히 내담자가 한 이야기를 그대로 반영해주는 것이다. 그러면 내담자는 자신의 이야기가 잘 전달되었고, 상대방이 공감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에 개발자인 조셉 바이젠바움은 사람들이 단순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마음을 털어놓고 너무 쉽게 감정적 애착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며 우려를 표하기까지 했다.⁵⁾

2) 규칙 기반 및 전문가 시스템

1972년 스탠퍼드 정신과 의사 케네스 콜비(Kenneth M. Colby)는 편집증(망상성) 환자의 사고 흐름과 방어 기제를 모사하는 “패리”(PARRY)를 공개했다. 프로그램은 ‘수용-거부-중립’으로 구분된 내부 신념 상태를 유지하면서 상대의 질문을 의심하거나 비꼬는 식의 반응을 확률 및 규칙 기반으로

3) Weizenbaum, J. (1966). ELIZA—A computer program for the study of natural language communication between man and machine. *Communications of the ACM*, 9(1), 36-45.

4) Turkle, S. (2011). *Alone Together: Why We Expect More from Technology and Less from Each Other*. New York: Basic Books, pp. 23-25.

5) Weizenbaum, J. (1976). *Computer Power and Human Reason: From Judgment to Calculation*. San Francisco: W.H. Freeman, pp. 189-192.

생성하였다. 실제로 정신과 의사들이 원격 터미널로 대화했을 때 사람과 구별하지 못한 비율이 48%에 달했다는 사실은 컴퓨터가 단순한 언어 패턴을 넘어 '정신상태'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는 기대를 불러 일으킴과 동시에 불안도 야기했다.

일라이자가 상담사로서 공감적 경청을 연기하며 사용자의 투사를 이끌어냈다면, 패리는 반대로 편집증 환자의 말투를 흉내 내며 내담자 역할을 하는 챗봇이었다. 패리는 확률과 규칙에 기반한 대화를 하며, 때로는 질문을 비꼬거나 회피하는 등 더욱 복잡한 응답 패턴을 보였다. 이런 대화형 인터페이스는 인간 상담자나 내담자의 특정 페르소나(persona)를 모방함으로써 인공지능이 사람의 심리 상태를 투사 및 반영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획기적인 발전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모델은 이미 입력된 규칙에 따라 반응하는 프로그램에 불과했다. 제시한 축어록의 예처럼 일라이자는 패리와 분명히 대화하고 있지만, 패리의 심리적 상태와 문맥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다. 이는 규칙 집합으로 구현된 모델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이후 규칙 기반 인공지능 상담은 전문가 시스템(Expert System)이 도입되면서 더욱 정교하게 발전되어갔다. 1970년대 중반 스탠퍼드 MYCIN 프로젝트는 600여 개의 생산 규칙과 역방향 추론(backward chaining)을 활용해 패혈증이나 수막염 같은 감염 유발 세균을 식별하고 환자의 신체에 따라 항생제 투약 용량까지 제안해주는 전문가 시스템의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⁶⁾ 같은 시기 피츠버그대의 INTERNIST-I는 내과에서 다루는 모든 진단의 70-80%의 질환 지식을 트리 구조로 인코딩해 증상-질환 매핑을 시도했다. 사용자가 시스템에 증상, 검사 결과, 환자의 병력 등을 입력하면, 이 모델은 지식 트리를 기초로 순위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진단을 내려주었다. 그러나 이 모델은 질환이 하나일 때는 탁월했으나, 다질환 중첩 사례에서는 위계적 결정 트리 한계를 드러내었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며 이 모델은 후속 시스템 QMR(Quick Medical Reference)로 계승되어 임상 교육용 전문가 퀴즈 도구로 활용되었다.⁷⁾ MYCIN이나 INTERNIST-I 같은 전문가 시스템은 직접 환자와 대화하기보다는 의사결정 지원을 목표로 했지만, 단순한 지원을 넘어 인공지능이 전문적인 정신 건강의 진단과 평가에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3) 현대의 인공지능 상담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신경망(Neural Network) 기술의 발전과 함께 보다 정교한 AI 상담 시스템들이 등장했다. 예를 들어, 1997년에는 인지 평가 및 재활을 위한 초기 컴퓨터 기반 소프트웨어인 COGNIssoft가 개발되었고, 2003년에는 최초의 컴퓨터화된 CBT 프로그램 중 하나인 "Beating the Blues"가 도입되어 디지털 치료적 개입이 현실화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대규모 임상 연구를 통해 우울과 불안 치료의 효과를 입증받기도 했다.⁸⁾ 이 시기의 시스템들은 단순한 텍스트 처리를 넘어서

6) Buchanan, B. G.; Shortliffe, E. H. (1984). *Rule Based Expert Systems: The MYCIN Experiments of the Stanford Heuristic Programming Project*. (Massachusetts: Addison-Wesley). ISBN 978-0-201-10172-0.

7) Jack D. Myers, "The Background of INTERNIST-I and QMR," in *A History of Medical Informatics*, eds. Bruce I. Blum and Karen Duncan (New York: ACM Press, 1990), 427-33.

8) Proudfoot J, Ryden C, Everitt B, Shapiro DA, Goldberg D, Mann A, Tylee A, Marks I, Gray JA. "Clinical

통계적 분석과 패턴 인식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머신러닝과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AI 상담은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했다. 2016년에 출시된 “Woebot”은 Facebook Messenger를 통해 제공되는 AI 상담사로, 머신러닝과 빅데이터 기술과 인지행동치료를 결합하여 실시간 상담을 제공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Woebot을 사용한 대학생들의 우울증과 불안 증상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⁹⁾ 이는 대화형 에이전트가 상담치료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2020년대에는 트랜스포머(Transformer) 아키텍처와 자연어 처리 기술(Natural Language Processing) 중 하나인 대규모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의 등장으로 AI 상담은 혁명적 변화를 맞았다. Open AI의 GPT는 AI는 인간과 거의 구별되지 않는 수준의 대화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제 AI는 사람의 감정을 텍스트에서 읽어내고, 음성 톤에서 심리 상태를 파악하며, 심지어 표정과 몸짓에서까지 내면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실제로 Wysa, Youper 등의 AI 전문 상담 플랫폼들은 챗봇 형태의 AI 상담사들을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수백만 명의 사용자에게 개인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인공지능 상담의 부작용

놀랍게 발전되어온 인공지능 상담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 여러 측면에서 유익을 줄 수 있다. 정신건강의 문제를 겪는 사람 중에 약 50%가 치료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접근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인간보다 더 정확한 분석을 제공하는 AI 상담은 의미 있는 사회적 공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인공지능 상담이 초래하는 부작용도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인공지능에 대한 의존성

그중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AI에 대한 인간의 의존성이다. 최근 많은 이용자들이 챗봇을 열어 사고와 판단, 심지어 감정까지 묻는다. AI 상담 플랫폼은 언제나, 어떤 질문이든 대답해주는 유용한 도구가 되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사용자들에게서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인공지능의 다음 지시를 기다리고, 인공지능이 가르쳐 준 방식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자기의 판단보다 인공지능의 판단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다. 한 연구에서는 AI 챗봇에 대한 과신이 인간의 결정, 비판, 분석, 사고 능력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고, 인공지능의 ‘빠르고 최적화된’ 해결 방식에 익숙할수록 인간은 답변에 대해 검증하기보다 수용하는 전략을 채택한다고 보고한다.¹⁰⁾ 또 다른 연구에서는 AI

efficacy of computerised cognitive-behavioural therapy for anxiety and depression in primary care: randomised controlled trial,”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Vol. 185 (2004): 46-54.

9) Fitzpatrick KK, Darcy A, Vierhile M, “Delivering Cognitive Behavior Therapy to Young Adults With Symptoms of Depression and Anxiety Using a Fully Automated Conversational Agent (Woebot):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JMIR Ment Health* 4/2 (2017):e19.

10) Zhai, C., Wibowo, S. & Li, L.D. “The effects of over-reliance on AI dialogue systems on students’ cognitive abilities: a systematic review.” *Smart Learn. Environ.* 11, 28 (2024).

활용이 결정 손실(27.7%)과 인지적 게으름(68.9%)과 큰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¹¹⁾ 이는 대화형 챗봇이 기억, 창의, 비판적 사고 기능 자체를 외주화시켜, 초기에는 학습이나 결과에 있어 마치 더 효율성이 높아진 것처럼 보이나, 장기적으로 오히려 학습 및 사고 능력이 저하되어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우울증이나 불안 등 이미 정신건강에 취약성이 있는 대상들은 대화형 챗봇에 의존함으로써 현실 문제로부터 회피하고 사회적 고립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중증도 이상의 우울을 호소하는 대상이 AI 챗봇 의존도가 높았고, 챗봇 상담 빈도가 잦을수록 우울 지표가 악화되는 결과를 나타냈다.¹²⁾ 즉각적이고, 모든 답변을 해주는 AI는 결국 사용자를 점점 더 조급하게 만들고,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더 쉬운 지침을 찾게 한다. 이는 사용자에게서 기다림, 인고의 과정, 정답 없는 현실을 견디는 힘을 빼앗아 간다. 그러면, 사용자는 더욱 AI에 의존하게 된다.

신앙 상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24시간 7일 동안 접근 가능한 상담사, 성경 해석가, 말씀 코치 등 하나님과 기도하며 대화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주어진 현실 가운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 손쉽게 챗봇을 통해 말씀의 메시지를 묻고 삶의 적용까지 맡기는 일이 점점 흔해지고 있다. 하나님은 기도에 즉각적으로 직접적으로 응답하지 않는 것같은데, 인공지능은 즉각적으로 모든 응답에 직접적인 답변을 제공하니, 쉽고 빠른 해결을 제공하는 인공지능을 누가 마다할 수 있을까?

이처럼 인공지능 기술에 전지, 전능, 초월의 서사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문제 해결보다 기술 의존에 몰입하게 된다. 이런 현상이 가중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점차 말씀을 찾기보다 챗봇의 지혜를 더 먼저 묻게 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 챗봇을 먼저 찾는 습관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는 결국 현대 일상을 지배하는 디지털 우상이 된다.

물론 기독교인이라면 어느 누구도 의식적으로는 인공지능을 디지털 우상이라고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자기의 의식과 달리 AI와의 대화와 지침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나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AI를 마음의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일상 속에서 바알이 주는 유익과 혜택을 기대하며 작은 우상들을 세웠던 것과 같은 심리이다. AI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AI 기능을 우상화하는 인간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다.

2) 데이터 환원주의

AI 상담이 보편화되면, 단순히 현장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변화될 수 있다. 오늘날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한 분별력을 갖지 못한다면, 의식하지 못한 수준에서 트랜스휴머니즘(transhumanism) 세계관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¹³⁾ 트랜스휴머니즘은 인간의 한계를 기술로 증강함으

<https://doi.org/10.1186/s40561-024-00316-7>

11) Ahmad, S.F., Han, H., Alam, M.M. et al. "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on human loss in decision making, laziness and safety in education." *Humanit Soc Sci Commun* 10, 311 (2023). <https://doi.org/10.1057/s41599-023-01787-8>

12) Xian Zhang et al., "Exploring artificial intelligence (AI) Chatbot usage behaviors and their association with mental health outcomes in Chines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Vol. 380 (2025): 394-400.

로서 완전화하려는 철학적, 실천적 시도이다.¹⁴⁾ 이런 맥락에서 기술은 자아 확장으로 간주된다. 점점 사람들은 디지털 코드를 신체의 일부로 경험하고, 디지털 매체를 통해 생물학적, 시공간적 한계를 넘어 자아를 형성한다. 뇌기능은 인공지능을 포함한 확장 인지(extended cognition)가 되고, 사유와 기억은 기술과 데이터로 외부화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사유적 기능이 인공지능의 추론으로 확장되고, 기억은 플랫폼의 데이터로 대체되면서 마치 디지털 기술이 제2의 뇌로 기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 대해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보편화 되면서 인간의 뇌는 소위 3가지, 곧 생물학적인 뇌(biological brain), 인공지능 뇌(artificial brain), 클라우드 뇌(cloud brain)가 된다는 예측도 있다.¹⁵⁾ 물론 이는 인공지능이 인간 뇌의 한계를 뛰어넘어 인간의 생물학적 뇌보다 더 뛰어난 뇌 기능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수사적 표현이지만, 이런 현실을 단순하게 받아들여지면, 결과적으로 자기 인식에서 인간과 기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기계를 포함한 상태로 인간 정체성을 정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현대 사회에 등장하고 있는 “AI-증강 인간”이라는 표현은 이미 인간의 정체성을 규정함에 있어서 인공지능 기술과의 결합이 핵심이 되고 있는 현상을 보여준다.

실제로 트랜스휴머니즘은 그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기술의 발달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으며, 그 한계를 극복하는 것을 사명이자 인간의 성장이라 여기고, 궁극적으로 “기술적 불멸(techno immortality)”을 추구한다.¹⁶⁾ 이에 트랜스휴머니즘 전문가 야이나 로는 “트랜스휴머니즘의 첫 번째이자, 수많은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이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기술 발전으로 인한 생명 연장, 노화 지연 등으로 실현될 “인간의 불멸”이라고 요약한다.¹⁷⁾ 인공지능 기술은 이를 디지털 세계 안에서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인간은 점점 데이터 정보로 환원될 수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문해력과 윤리는 필수적이다.

3. 인공지능 상담에 대한 성경적 고찰

AI는 상담에 분명 유용한 도구다. AI는 방대한 정보 제공과 빠른 판단, 표준화된 치료적 훈련, 감정 패턴 분석, 개인 맞춤형 전략 제공 등 인간보다 높은 효율성을 보인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언어로든, 누구에게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초접근성은 많은 이들에게 상담의 문턱을 낮추어 줄 것이다. 따라서 AI 상담의 기술을 우리는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AI 상담이 인간과의 상담, 특히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는 상담사를 본질적으로 대체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의 존재론적 한계

13) 트랜스휴머니즘에 대한 논의는 김규보, “다음 세대의 이해와 성경적 영혼돌봄” 신학지남 (2025): 90-94을 참고했다.

14) Janina Loh, 『트랜스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 (부산: 부산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18.

15) 최윤식, 최현식, 『앞으로 5년 한국교회 미래 시나리오』 (생명의 말씀사, 2020), 203

16) Latha Christie, “Stefan Lindholm & Garrett Starr, Transhumanism, Lausanne Movement” (2023), <https://lausanne.org/report/human/transhumanism?>; Roberto Manzocco, 『트랜스휴머니즘의 역사와 철학』, 유용석, 김동환 역 (전주: 전북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171-178.

17) Loh, 『트랜스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 54.

첫째, AI는 결코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없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오직 인간만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창 1:27), 이는 인간이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하며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특별한 존재임을 의미한다. 반면 인공지능은 인간이 만든 도구일 뿐, 영혼도 양심도 없다. AI가 아무리 사람 흉내를 내어 감정적인 말과 위로를 건넨다 해도, 그것은 알고리즘이 통계적으로 가장 그럴듯한 단어를 고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느끼는 공감과 위로, 영성은 사실 우리 자신의 심리적 투사라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일라이자 효과가 보여주듯, 사람은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에 감동하고 마음도 연다. 그러나 정작 그 상대는 마음이 없는 기계일 뿐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기계인 AI와 진정한 의미의 인격적 소통이나 영적 교류를 이루는 것은 본질상 불가능하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면, 성경이 제시하는 인간의 궁극적인 생활 양식은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은 단순히 심리적 안녕과 마음의 평안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다. 따라서 성경적 관점에서 상담은 단순한 증상 완화 혹은 호소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주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삶을 형성하는 사역이어야 한다.¹⁸⁾ 이런 맥락에서 상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타락한 세상에서 죄, 장애 및 질병 고통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는 복음과 과정이다. 궁극적으로 성경적 상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구원드라마의 실재 가운데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지금 여기를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실천”이다.¹⁹⁾ 따라서 성경적 상담사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를 반영한다. 자기를 비워내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 궁극적으로 상담사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성경적 관점에서의 상담 과정이다. 치유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의 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열매다.

AI가 사람보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 더 잘 가르칠 수 있고, 더 많은 성경 지식을 줄 수 있다. AI가 사람보다 더 세련되고 은혜가 되는 문장으로 말할 수 있다. AI가 상황과 문맥에 적절해 보이는 성경 구절을 더 잘 찾아 줄 수 있고, 고대 근동의 문화적 배경과 언어, 주석을 고려하여 그 구절을 더 통찰력 있게 해석해 줄 수도 있다. 그러나 AI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 숨쉬는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를 결코 경험시켜 줄 수 없다. 따라서 AI 상담사는 아무리 인간처럼, 때로는 인간보다 더 인간적으로 기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없다. AI 상담사는 인간의 심리와 정신병리, 복음에 대한 수많은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없다. AI 상담사는 죄와 은혜에 대한 교회사의 수많은 논쟁과 지식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앞에 참회의 눈물을 흘릴 수 없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 본질상 엄격하게 구분되듯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과 인간이 만든 기계로서 AI도 존재론적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진정으로 알 수 없는 AI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상담을 맡기고 책임을 부여해서는

18) 김규보, 『성경적상담학 개론(상): 구원드라마와 그리스도 닮음』 (생명의 말씀사, 2025), 52

19) 김규보, 『성경적상담학 개론(상)』, 53.

안 된다. 하나님의 형상은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되신 그리스도께 의존해야 한다. 우리의 치료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며, “여호와 라파” 되신 아버지 하나님이다. AI는 인격이 아니다. AI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다스려야 하는 도구다.

2) 인격적 관계의 부재

둘째, AI 상담이 생성하는 관계성은 인격적 현실이 아니다. 인간은 언약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수직적, 이웃과 수평적 관계를 맺도록 창조된 존재이다.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며,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온전해진다고 가르친다. 따라서 상담은 관계적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담자와 상담자가 맺는 신뢰 관계가 치유의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라는 것이다. 그러나 AI와의 관계는 사실 인격적 상호 작용이 아니다. AI는 그리스도를 닮은 긍휼과 진심 어린 공감, 사랑으로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없다. AI가 아무리 좋은 통찰로 인간의 심리를 분석하고 위로가 되는 말을 한다 해도 그것은 프로그램으로 생성된 언어일 뿐, AI는 한 영혼을 사랑하거나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AI는 인격적인 친구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 아니라 결국 인간이 알고리즘을 통해 구현한 매체일 뿐이다.

3) 텔로스의 부재

셋째, 상담의 궁극적 목적(telos)을 AI는 추구할 수 없다. 성경적 관점에서 상담의 궁극적 목적은 단순히 증상 완화가 아니라 내담자가 전인적 측면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변화다. 인간 상담자는 비록 불완전하고 동일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영적 존재로서 내담자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에 동행한다. 그러나 AI는 하나님의 임재나 목적을 담을 수 없으며,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할 수도 없다. AI가 기도문을 은혜롭게 작성해 줄 수 있지만, 그것은 AI가 우리를 위해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기도가 아니다. 그것은 프롬프트로 주어진 상황과 사용자의 지침에 따라 형성한 디지털 문자의 조합일 뿐이다. 따라서 AI는 인간을 참된 영적 치유나 회복으로 인도할 수 없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공지능에게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4) 윤리적 책임의 한계

넷째, AI는 상담 과정과 결과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상담사에게는 내담자의 비밀을 지키고, 해가 되는 개입을 삼가고, 도움이 안 되면 다른 치료적 조치를 취하는 등 윤리적 책임이 요구된다. 그러나 AI에게 우리는 이러한 윤리적 책임을 기대할 수 없다. AI는 생성된 산출물에 대해 문제가 생겨도 법적으로나 윤리적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이미 살펴보았던 AI와 대화 후 자살을 한 사용자의 사례에 있어서도 AI는 도덕적 책임을 지지 않고, 심지어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AI를 개발한 사람과 기업이 그 책임을 지고 있다. AI가 내담자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AI를 사용하고 있는 취약한 상태의 내담자에게 그 책임을 지게 하는 것도 치료적이지 않다. 이는 AI를 실제 상담에 적용하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5) 성령의 부재

다섯째, AI 상담사는 성령을 의존하지 않는다. AI는 접근 가능한 수많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의존한다. 우리는 상담 과정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믿는다. 성경적 상담은 소위 “삼자적(tioalogical)”이라고 하는데,²⁰⁾ 이는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상담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다. 그러나 AI와의 대화도 성령이 주관하는가? 확신할 수 없는 대목이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어떤 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 기술 발전 자체도 하나님의 창조 은총의 일부일 수 있고, 분명 우리는 AI를 통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기술로 통제하거나 구현할 수 있지 않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구속 사역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다. AI가 아무리 많은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죄에서 돌이키고 새롭게 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따라서 말씀 앞에 스스로를 성찰하지 않고,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을 따를 수 없는 AI 상담사에게 우리는 구원드라마의 섭리 가운데 한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해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치유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다.

4. 상담 현장에서의 AI 활용

이제 인간의 병리를 진단하고 감정을 분석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탐색하는 기능은 AI가 더 잘하는 시대가 되었다. 챗봇이 인간보다 더 설득력 있게 위로의 말을 전달하고, 심지어 24시간 대기하는 상담 휴머노이드가 내 삶을 기록하고 나의 정신건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때로는 내 마음을 나보다 먼저 알아차리기도 한다. 많은 기능적 영역에서 AI는 점점 뛰어난 기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기회다. 이런 시대일수록 인간은 더욱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 기능적인 측면을 AI가 대신해 줄 수 있기에 오히려 인간은 더욱 본질에 집중할 수 있다. 그 본질은 바로 복음이다.

복음은 인간 존재의 시작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귀한 존재이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그 타락은 마음의 고통과 관계의 파괴, 정체성의 혼란으로 이어진다. 상담은 바로 그 타락한 실존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상담사의 본질적 사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인간의 전인적 타락상이 초래하는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진단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하고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돕는 데 있다. 이것은 AI가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영혼 돌봄의 본질이다.

AI는 다양한 이론과 기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지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AI는

20) 김규보, 『성경적 상담학 개론(상)』, 318.

따뜻한 말로 조언할 수 있지만, 기도할 수는 없다. AI는 내담자의 생애를 정리하고 다 기억할 수 있어도, 그 영혼을 가슴에 품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상담을 전적으로 거부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인공지능은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보완해 주는 유익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지혜롭게 활용하되, 인간은 더욱 본질에 집중하는 협업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상담 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실천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자동화 시스템 구축이다. 상담 중 녹음된 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상담일지를 자동으로 정리하고, 내담자의 정서적 키워드나 위기 문장을 추출해 상담자의 개입을 돕는 시스템은 이미 개발되었고 활용되고 있다. 사전 동의서 접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작성, 상담 일정 자동 예약 등 반복적 행정 업무는 AI에게 위임하고, 상담자는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내담자에게 집중할 때, 인간 상담사와 AI는 건강한 협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보조 분석 장비로서의 활용이다. AI 안경이나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를 통해 상담자는 실시간으로 내담자의 표정, 음성 톤, 말 속도 등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서 상태와 개입 지침을 보조 화면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이는 즉각적인 수퍼비전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특히 경험이 적은 상담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형태의 상담은 인간의 인격적 측면과 영성 등의 본질과 AI의 빠르고 정확한 분석이 협력하는 새로운 형태의 상담 협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언어 및 장애 등의 현실 장벽을 넘는 상담 환경의 구축이다. 다문화 사회가 확산되면서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내담자와의 상담은 필연적이다. 인공지능은 실시간 다국어 통역과 문화 맥락에 맞춘 번역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언어가 달라도 깊은 정서적 연결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이는 선교지, 이민 공동체, 다문화 가정 등을 섬기는 교회와 상담소에 큰 자산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생각이나 감정을 알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미 인공지능 칩을 뇌에 삽입하여 머리 속으로 생각하는 문장을 약 75%가량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현실이다.²¹⁾ 이는 발화에 대한 부담 없이 내담자의 마음을 좀더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이나 실어증, 자폐,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트라우마를 지닌 내담자들에게 이런 기술을 활용하면 말하기 어려운 일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언어 및 영상으로 송출하여 그들의 마음을 더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이런 접근은 다양한 윤리적 고려와 내담자의 동의 아래 진행되어야 한다.

넷째, 상담 훈련을 돕는 도구로서 AI-휴머노이드의 활용이다. 상담 현장에서 안정한 관계는 필수적이다. 준비되지 않은 상담사는 내담자의 인격과 삶에 오히려 파괴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는데 AI-휴머노이드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다양한 케이스의 상담 장면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AI 아바타나 로봇은 학생들이 반복 학습과 실습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특히 다양한 내담자 유형, 위기 상황, 정서 반응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어 상담 실무 진입 전 단계에서 효율적이고 안전한 교육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모든 상담 기법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저장하고

21) Erin M. Kunz et al., "Inner speech in motor cortex and implications for speech neuroprostheses" *Cell* (2025)

있고 가장 빨리 업데이트 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는 상담 교육 현장에서 탁월하게 활용될 것이다. 따라서 상담 철학 및 신학을 토대로 정교하게 조율된 맞춤형 휴머노이드 시스템을 만들고 활용할 수 있다면, 이는 실제 상담 현장에서 큰 유익을 줄 것이다.

다섯째, 이 모든 활용의 기초로서 '성경적 AI 리터러시'가 필요하다. AI를 활용하는 상담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 10:31)는 성경의 말씀처럼, 인공지능의 모든 기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간 상담사는 인공지능의 활용에 있어서 분명한 성경적 원칙과 윤리를 세울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에 담겨진 세계관과 활용 방식에 숨겨진 신학적 도전을 읽어내고 분별할 수 있는 성경적 AI 리터러시 함양은 향후 상담사의 필수적인 자질이 될 것이다.

Ⅲ. 닫는 글

상담은 결국 한 사람의 고통을 깊이 듣고, 사랑으로 반응하며, 회복의 여정을 함께 걷는 인격적 만남이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 만남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AI는 하나님의 형상을 도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을 대신할 수는 없다. 복음이 말하는 인간은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고 감정에 반응하는 기계적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창조주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상담자는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돕는 사명을 받은 자이다. 기술은 진보할수록 도구로서 더 유익해질 것이다. 그러나 참된 영혼 돌봄은 기술이나 도구로 이루어지지 않고, 복음으로 실천된다. 따라서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더욱 복음의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참된 영성을 품은 상담자를 통해 내담자들은 인공지능에게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참 하나님의 형상을 경험하고, 궁극적으로 그 인격체 안에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치유는 기술 발달의 결과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열매이다.

참고문헌

- 김규보. 『성경적상담학 개론(상): 구원드라마와 그리스도 뉘음』. 서울: 생명의말씀사, 2025.
- 김규보. “다음 세대의 이해와 성경적 영혼돌봄.” 『신학지남』 (2025): 85-109.
- 최윤식, 최현식. 『앞으로 5년 한국교회 미래 시나리오』. 생명의 말씀사, 2020.
- Ahmad, S. F., H. Han, M. M. Alam, et al. “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on Human Loss in Decision Making, Laziness and Safety in Educatio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ommunications* 10 (2023): 311. <https://doi.org/10.1057/s41599-023-01787-8>.
- Buchanan, Bruce G., and Edward H. Shortliffe. *Rule-Based Expert Systems: The MYCIN Experiments of the Stanford Heuristic Programming Project*. Reading, MA: Addison-Wesley, 1984.
- Christie, Latha. “Stefan Lindholm & Garrett Starr, Transhumanism, Lausanne Movement” (2023), <https://lausanne.org/report/human/transhumanism?>
- Fitzpatrick, K. K., A. Darcy, and M. Vierhile. “Delivering Cognitive Behavior Therapy to Young Adults with Symptoms of Depression and Anxiety Using a Fully Automated Conversational Agent (Woebot):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JMIR Mental Health* 4, no. 2 (2017): e19.
- Kunz, Erin M., et al. “Inner Speech in Motor Cortex and Implications for Speech Neuroprostheses.” *Cell* (2025).
- Loh, Janina. 『트랜스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 부산: 부산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 Manzocco, Roberto. 『트랜스휴머니즘의 역사와 철학』, 유용석, 김동환 역. 전주: 전북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 Myers, Jack D. “The Background of INTERNIST-I and QMR.” In *A History of Medical Informatics*, edited by Bruce I. Blum and Karen Duncan, 427-33. New York: ACM Press, 1990.
- Proudfoot, J., C. Ryden, B. Everitt, D. A. Shapiro, D. Goldberg, A. Mann, A. Tylee, I. Marks, and J. A. Gray. “Clinical Efficacy of Computerised Cognitive-Behavioural Therapy for Anxiety and Depression in Primary Care: Randomised Controlled Trial.”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85 (2004): 46-54.
- Turkle, Sherry. *Alone Together: Why We Expect More from Technology and Less from Each Other*. New York: Basic Books, 2011.
- Weizenbaum, Joseph. “ELIZA—A Computer Program for the Study of Natural Language Communication between Man and Machine.” *Communications of the ACM* 9, no. 1 (1966): 36-45.
- Weizenbaum, Joseph. *Computer Power and Human Reason: From Judgment to Calculation*. San Francisco: W. H. Freeman, 1976.
- Zhai, Cong, Suryani Wibowo, and Lee Duan Li. “The Effects of Over-Reliance on AI Dialogue Systems on Students’ Cognitive Abilities: A Systematic Review.” *Smart Learning Environments* 11 (2024): 28. <https://doi.org/10.1186/s40561-024-00316-7>.
- Zhang, Xian, et al. “Exploring Artificial Intelligence (AI) Chatbot Usage Behaviors and Their Association with Mental Health Outcomes in Chines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380 (2025): 394-400.

총회정책연구소와 ‘함께’ 해 주십시오

작은 어린아이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정책연구소를 지향하겠습니다.

총회정책연구소의 발은
탈교회 현상이라는
냉엄한 현실을 딛고
그 길을 헤쳐 나갈 것입니다.
그 눈은 100년 후를 바라보고,
그 심장은 10년 후
한국교회를 향하여 뿔 것입니다.

▶ 모시는 글

총회정책연구소는 <정책총회> 구현을 통해
전국교회의 새로운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적시적이며 미래지향적 “정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전국교회와 목사님, 주일학생을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드립니다.

▶ 모집 개요

분 야

- A. 100인의 전문위원 모집: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
- B. 정책연구소와 함께 공동 연구(주제 함께 논의)하고자 하는 교회
- C. 연구 스텝 모집: 정책연구(문안 작성 등) 일을 도와주며 배우고 싶은 분
- D. 자원봉사자 모집: 심포지엄 및 대, 소 세미나 등을 도와 주실 분
- E. 100대 정책개발을 위한 제안: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 제안

영 역

편집, 웹디자인, 목회, 다음세대, 문화, 예술, 행정, 경영, 교육, 사회복지,
통계, 선교, 전도, 구제, 자원봉사 등 교회와 총회의 정책 개발과 수행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모든 분야 총망라

지원자격

주님과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누구나

참여 문의

- 1) 웹: www.pckinst.org(총회정책연구소)
- 2) 이메일: a9191z@hanmail.net
- 3) 우편접수: 06177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330 총회회관 1층 총회정책연구소

접수기간

항시 접수

결 과

개별 통보

▶ **섬기는 사람들**

이사회

이 사 장 신용기 목사
 부이사장 조상용 목사 최순식 장로
 서 기 맹일형 목사 부서기 박순석 목사
 회 계 류호길 장로 부회계 하정민 장로
 감 사 정희진 목사 김윤희 장로
 이 사 권규훈 목사 김대훈 목사 김용대 목사 김종언 목사
 김준기 장로 김태영 목사 박병호 목사 윤영민 목사
 이상화 목사 임춘수 목사 장봉생 목사 한근수 목사
 홍성현 목사 홍승영 목사 황연호 목사

연구소

자문위원 박성규 총장 최대해 총장
 황건영 총장 박은식 총장
 소 장 노재경 목사
 연 구 원 권준호 목사 김덕현 교수 김병수 목사 김수환 교수
 김주원 교수 김찬영 교수 김희석 교수 마상욱 목사
 박재은 교수 배춘섭 교수 손병덕 교수 신국원 교수
 안인섭 교수 안철현 목사 양현표 교수 유은희 교수
 윤영민 목사 이정현 목사 이풍인 목사 정충길 목사
 최광영 목사

총회정책연구소

발행일 2026. 4. 16

발행처 총회정책연구소

편집인 노재경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330

총회회관 1층

www.pckinst.org